



청정원 친환경 농업, 깨끗한 물, 아름다운 자연이 만나는 신선한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청정원의 얼굴입니다. 깨끗하고 신선한 자연이라는 의미를 가진 청정원은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식물산업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장래 우리 조국의 식량과 농산물, 수산물 등의 기초소재식품을 전대하여 만들어내는 새로운 식품 브랜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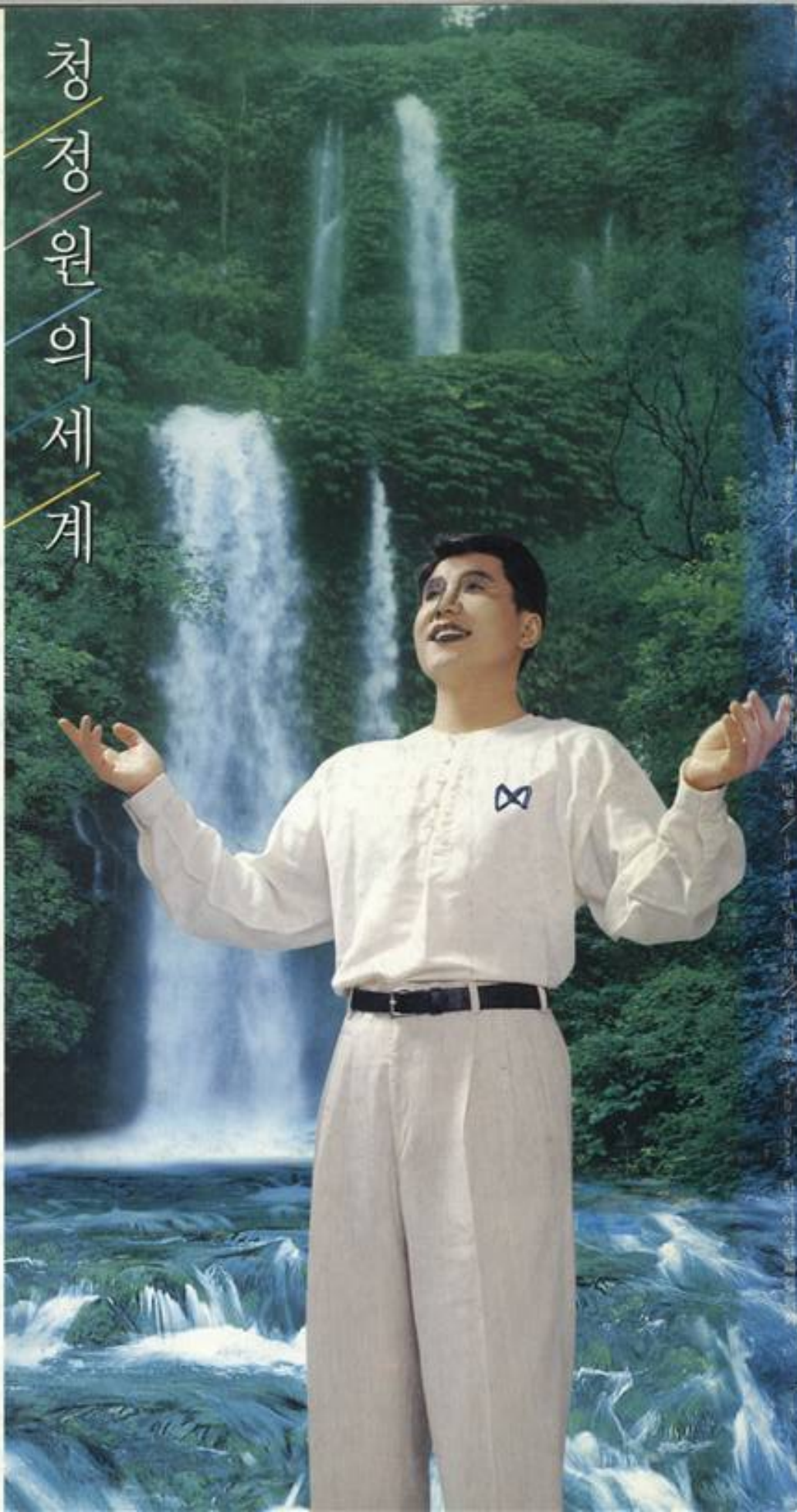


청정원

신선함을 생명처럼 지켜가는 이 자연 -
바로 청정원의 세계입니다.
미원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름, 청정원 -
신선하게, 정직하게 -
청정원이 맛으로 자연을 찾아드리겠습니다.

MIWON

청정원의 세계



월간여성 1·2월호(통권 348호)/1997년 2월 10일(매월 10일) 발행/1964년 6월 13일(우편번호 140-013)

여성



집

가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미나

97.1.2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피부에 내리는 단비! 이자녹스 하이드라 이엑스-

계절에 관계없이, 피부 타입에

관계없이 언제나 촉촉하고 윤기있는

피부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기초화장품부터

전문보습화장품을 써보세요.

피부 타입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자기 피부에

꼭 맞춰 쓸 수 있는 이자녹스 하이드라 이엑스-

이중보습효과와 전문 보습화장품입니다.

1 적극적 보습기능...피부의 수분밸런스를

유지시켜줍니다.

최대결합수 시스템이 피부 내의 수분을 장시간

유지시켜주고, 신성분 리포다말(Lipodermal)이

피부의 수분조절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2 피부 타입별 세분화... 자기 피부에 맞춰

쓸 수 있습니다.

계절별로 기초화장품을 바꿔쓰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건성인지, 중성인지, 복합성인지

자신의 피부타입만 정확히

체크하시고 피부 타입에 맞춰

골라주세요.

- IZA KNOX EX 에센스 스킨 건성용 180ml, 28,000원
- IZA KNOX EX 에센스 스킨 중·복합성용 180ml, 28,000원
- IZA KNOX EX 에센스 스킨 지성용 120ml, 30,000원
- IZA KNOX EX 후쿠이도 에센스 중·복합성용 80ml, 30,000원
- IZA KNOX EX 후쿠이도 에센스 지성용 50g, 30,000원
- IZA KNOX EX 인텐시브 크림 중·복합성용 50g, 30,000원
- IZA KNOX EX 인텐시브 크림 지성용 35ml, 32,000원



■ 이자녹스는 피부관리를 위한 제품입니다.

ISA KNOX

월간 여성

월간여성 1·2월 통권348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 신년사

정치, 경제, 교육, 이제 여성이 나설 때/이연숙

특집/가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미나

8 주제발표: 가정 안전사고 실태 및 안전문화 조성방안/ 김용자

20 지정토론: 박연홍, 한정석, 이덕영, 윤강림, 김태진

33 매스컴에 비친 여성

오전 토크 쇼 프로그램/이영주

38 협동회단체를 찾아서

대전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40 근로여성고발창구 운영 보고서

주부사원, 부당대우 받고있다.

44 촛점

정무장관(제2)실 10대 역점시책

46 여성학 지상강좌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 김양희

49 해외여성통신

진보하고 있는 미작업에서의 남녀평등/김은주

52 여성계동향/이구경

55 협의회 소식

57 우리들의 광장

한해가 시작하는 정월이면 지난
것을 접어 두고 새로운 기대와 포
부로 다가오는 한해를 잘 살기 위
한 설계를 합니다. 1997년은 우리
에게 중요한 한해가 됩니다. 1998

신년사

정치, 경제, 교육, 이제 여성이 나설 때

이연숙 본회장

어느 나라에서나 인재의 낭비는 국력의 낭비입니다.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유독 여성의 고급 능력 활용에 대해서만은 왜 이렇게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여성이 나서서 한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년부터 5년동안 우리 삶의 조건을
만들어 갈 새 대통령을 선택하는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성계는 여성이 바라는
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여성
의 바람이 궁극적으로 가족과 가

족이 생활하는 가정과 사회가 그
들이 지내기에 쾌적하고 평화로와
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임
을 확인하고 정책을 만들어 실천
에 옮기는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새로 뽑
힐 대통령이 잘 인식하도록 활동
을 펴 나가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여성이 보턴
17%의 표로 당선될 수 있었고 여
성들은 세금을 적게 물기보다는
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제시한 클
린턴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이
제 한국의 여성 유권자도 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 5년동안 살아갈
삶의 질을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9일부터 5일간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제3
차 세계여성정상회의에 참석했습
니다. 50여개국에서 400명이 넘
는 전·현직 부통령, 총리와 부총
리, 장·차관과 국회의원, 여성 기
업인 그리고 세계적인 여성 지도
자들이 모여서 여성의 경제 세력
화를 논의한 이번 회의는 우간다
부통령이 개막 연설을, 코스타리
카 부통령이 폐막 연설을 하고 리
투아니아 전 총리와 여러나라의
현직 장·차관 그리고 국회의원
과 여성 기업가가 발제 강연과 토
론을 맡아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
여를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 앞
으로의 발전적인 전망과 효과적인
전략들을 의논하였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진지하고 열정적이며 토
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이웃나라 일본
이 내세운 여성 전문가와 관리의
양적이고 질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비슷한 문화 여건에서 발빠르게
발전하는 그들의 위상을 바라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이 빨리
바뀌지도록 우리의 역할을 해내야
하겠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여
성 각료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임명하는데 적극적으로 여성의 능
력과 영향력을 적시하여 활발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과 인
사를 나누고 명함을 받아 보면 국
회의원은 물론 전·현직 고위 인
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회
의를 준비한 사람은 미국 후로리
다주의 상원 의원이었고 마이애미
주변 지역만 해도 7명의 여성 시
장이 신명나게 도시 행정을 주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대부분
의 정상급 여성들은 우리 나라에
서 활동하는 전문직 여성이나 지
도자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는
분들이어서 우리나라 여성의 능력
이 기회를 못가져 많이 사장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
다. 어느 나라에서나 인재의 낭비
는 국력의 낭비입니다. 남녀를 차
별하기 전에 능력을 평가하는 제
도가 아쉽습니다. 여성의 경제 참
여는 정보사회로 치달으면서 국가
발전의 필수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상상력과 창의성, 섬세성
과 통합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
저 챙기고 조화속에서 자신의 자

리를 만들어 가는 능력은 바로 지
금부터의 세계가 필요로 하는 능
력입니다.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유독 여
성의 고급 능력 활용에 대해서만
은 왜 이렇게 후진성을 면치 못하
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여성이 나서서 한해가 되어야 하
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세계 속에서 차지
하는 자리는 유엔 회원국 185개
국 중에서 15번째 안에 듭니다.
국력을 겨루는 올림픽에서는 10
위를 기록했습니다. 교육 수준과
활발한 생산성을 근거로 하고 살
펴보면 우리의 삶의 질은 뒤떨어
진 편이고 그 중에서도 여성의 사
회참여와 정치 및 경제 참여의 비
율은 바닥권에 속합니다. 우리 모
두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외형상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 모두가 힘을 합쳐 선진국의 내
실을 기하기 위해 일할 때입니다.

삶의 질과 관련하여 여성이 해
야 할 일은 많습니다. 그 중에도
교육 분야의 일들은 시급합니다.
우선 교육제도나 내용에서 성차별
을 없애고 개인마다 다른 재능을
창의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남녀로 구
분하기 전에 사람으로서 누구나가
인정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나
라를 흔드는 과외와 사교육비용도
대단히 후진적인 양상입니다. 선
진국에도 과외가 있습니다. 내용
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개성에 맞게 지도력을 기르기 위
해서 시킵니다. 우리나라의 과외
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옆 친구보
다 시험 점수를 더 받게 하기 위해
되풀이하여 기계처럼 해내는, 그
래서 창의력과 협동정신을 좀먹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공교육비 보다 곱
절이나 더 많이 든다는 현실에서
여성이 아니고는 이 문제 해결에
접근 할 수도 없습니다. 사교육비
의 부담은 정직한 수입으로는 감
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 사회 전체가 부패할 수밖에 없
는 여건을 만든 셈입니다. 이제 여
성이 과감하게 교육 문제를 맡아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은 다리도 끊어지고 건물
도 무너집니다. 교통사고 발생률
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힙니다. 그
래서 후천적인 사고로 장애인
이 많이 생깁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허점과 무관심은 사람도 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의 가족을 모두
불행하게 만듭니다. 가정에서부터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 수칙을
실천에 옮기는 일에 관심을 가져
야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의 현장은 습관적으
로 관습을 따라 맹목적으로 되풀
이하는 일이 많습니다. 농경 사회
에서 집에서 가르치던 모든 내용
이 서당을 통해 학교 제도로 발전
했고 병자들 돌보던 기능은 보건
시책과 병원 경영으로 변화했습니
다. 최근에 여성 취업과 조기교육
의 필요성 때문에 영·유아 교육

시설과 탁아시설이 크게 늘어나고
금년도 대학 입시에서 영·유아
교육 분야의 입학 지원자가 급격
하게 늘어나 최고의 경쟁률을 초
래했습니다.

여성이 사회 참여에 불리했던 여건 중에 자녀의 양육 문제와 가사 부담이 큰 것이었는데 이제 자녀 탁아의 시설 확장과 기능이 생기면서 이제부터 여성 운동은 가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직장과 학교에 적을 두고 하루 깨어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집밖에서 지냅니다. 점심은 물론 아침이나 저녁 식사까지도 밖에서 먹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외식산업은 최고의 값비싼 호텔이나 잡다한 영세 업소가 주종을 이뤄 대중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영양과 맛이 있는 음식을 위생적인 업소에서 쾌적하게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밖에서 음식을 공급하는 업체가 가정의 역할을 대신 한다면 그러한 기능이 주부의 정성을 담아 낼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여성이 정책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식사 준비의 그 실천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식사 준비의 양상도 음식 쓰레기로 연간 10조원씩 내버리는 현실에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에너지로 만들어

여성이 사회
참여에 불리했던 여건
중에 자녀의 양육 문제와 가사 부담이
큰 것이었는데 이제 자녀 태아의 시설 확장 기
능이 생기면서 이제부터 여성 운동은
가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옛날에 팔렸던 신생활 운동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또 하나의 신식 생활을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내는 수도물 등 여성의 결정과 실천 하나 하나가 국제 경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 수가 줄고 가족의 식사 회수가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음식 준비가 5인분을 기준으로 한 원료 판매 단위에서 2인분으로 바뀌어야 하고 많은 분량을 만들어야 제맛을 내는 식품은 집집마다 만드는 대신 완제품이나 반제품으로 특화하여 현대화된 유통 경로를 통해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식품 재료 다듬기부터 환경과 관련해서 삶의 형식과 내용을 두루 고찰하고 공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옛날에 펼쳤던 신생활 운동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또 하나의 신식 생활을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많은 할 일 중에서 올해 할 일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후회없는 한해로 채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사회가 밝고 건강한 현해를 맞게 되길 바랍니다.

특집

가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미나

다음은 지난 '96년 12월 6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본회가 개최한 세미나 내용입니다.



주제발표

가정 안전사고 실태 및 안전문화 조성방안

김용자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1. 서론

1. 조사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그동안 소득향상으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풍요와 편리함의 위험이 높게 내재되어 있는 물질이나 기계·기구·설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전에 비하여 위험도가 높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생활 습관은 미흡하고 기계·기구·설비를 제공하

는 기업은 성과주의와 적당주의로 대량생산하므로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간의 욕구를 단계별로 나누어 본 Maslow는 인간은 제일 먼저 생존을 위한 의식주를 구하지만 그 다음으로 필요되어지는 것은 안전과 안정이라고 하였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생존을 위한 의식주 문제는 충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전과 안정이다. 다시 말해서 소득 수준 향상으로 안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그뿐 아니라 연이은 대형참사와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교통사고로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은 높아졌으나 안전생활 습관은 의식에 따르지 못하고 있음이 1996년 3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국민소득 만불시대에 돌입했고 OECD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다할 뿐 아니라 선진국처럼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안전문화를 토착화 시키는데 전력을 해야겠다.

안전문화란 구성원들이 안전에 관하여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행동양식·신념·태도 사고방식이다. 안전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물론 국가 역시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와 국민들이 안전문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스스로 안전수칙을 잘 이행해야 안전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 국민 모두 안전에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 수칙을 잘 이행한다면 기업과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동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 모두 안전감시단이 되기 때문이다. 안전문화를 토착화 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안전에 대한 생활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에서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먼저 각 가정의 안전사고를 파악하고 안전의식 수준과 행동에 대하여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어 진다. 이러한 자료는 국민의 안전문화를 성취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홍보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안전문화를 토착화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에 자료를 제공하고 안전문화 조성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조사연구의 목적이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조사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가정에서 안전사고 실태를 파악한다.
- ② 가정에서 안전의식 실태를 파악한다.
- ③ 가정에서 안전을 위한 행동과 지식을 파악한다.
- ④ 가정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본 조사연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가정주부 1004명을 지역별 가구비례 다단계 무작위 추출법으로 추출하고 훈련된 면접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가지고 면접하였다. 면접원에 의하여 작성된 설문지 중 20%를 무작위 추출하고 검증원이 가정을 재방문하여 응답의 허위기재나 조작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발견된 설문지는 무효화 하고 예비표본에서 재조사하였다. 조사는 1996년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PC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하였다. 분석 방법은 주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이용하였다.

3.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연령이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조금 더 많은 집단은 30세부터 34세(24.4%)와 50세 이상(24.6%) 집단이었다. 교육수준은 조사대상자의 46.1%가 고졸이었으며, 국졸 이하 집단도 21.5%로 두번째 많은 집단이었다. 가구주 직업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화이트칼라 직업이 가장 많았고(38.5%), 그 다음은 자영업(21.3%)이었다. 주부의 직업 유무는 전업주부가 75.6%로 가장 많고, 전일제 고정직 주부도 17.3%였다. 소득수준은 52.1%가 101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였고, 100만원 이하인 가구도 27.1%나 되었다. 지역은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이 23.2%와 22.2%로 가장 많은 집단이고, 강원과 대전·충청은 3.4%와 9.9%로 가장 적은 집단들이었다. 주거지역 크기는 48.0%가 대도시에 살고 30.8%는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식구수는 3명 혹은 4명이 전체의 62.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5명 이상으로 22.3%였다. 노인이 없는 가정은 74%였고, 중고생이 있는 경우는 19.3%, 초등학교생이 있는 경우는 25.6%,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는 44.7

%로 나타났다.

II. 조사결과 분석

1. 가정 안전사고 실태

1) 사고내용

〈표 1-1〉에서 보면, 우리나라 가정 주부를 대상(N=1,004))으로 가정내 안전사고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3가정중 1가정이 가정 내에서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내용을 보면(중복응답), 가정 내에서 '넘어짐/미끄러짐' 사고와 '찢림/베임' 사고의 경험률이 높은 가운데 화상, 추락, 충돌 사고가 뒤를 이었으며, 감전, 중독/질식 사고의 경험률은 낮았다.

내용별로 평균 사고 빈도를 보면, 사고 경험자 기준으로 보면 '충돌' 사고와 '찢림/베임' 사고가 3회 이상 높은 사고 빈도를 보였다.

〈표 1-1〉 사고경험, 내용, 빈도, 위치

명목	구분	비율(%)	명목	구분	비율(%)
사고 경험	예	33.6	사고 위치	부엌/주방	34.4
	아니오	66.4		방	18.3
	계	100		거실/마루	16.5
사고 내용	넘어짐/미끄러짐	45.4		마당/아파트 복도	12.0
	찢림/베임	42.4		계단	8.2
	화상	30.3		화장실/목욕탕	6.5
	추락	19.6		베란다/옥상	2.6
	중독/질식	5.3		현관	0.8
	감전	5.0		창고	0.2
	기타	0.3		엘리베이터	0.2
사고 빈도	추락	1.88		기타	0.3
	충돌	3.23		계	100
	넘어짐/미끄러짐	2.68			
	찢림/베임	3.36			
	감전	2.24			
	화상	2.38			
	중독/질식	2.44			

사고를 당한 위치를 보면, '부엌/주방'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거실/마루', '방', '마당/아파트 복도' 등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당한 위치별로 주로 발생하는 사고 내용을 보면 부엌/주방에서는 찢림/베임 및 화상 사고가, 거실/마루에서는 충돌 및 넘어짐/미끄러짐 사고가, 방에서는 감전 및 중독/질식 사고가, 화장실/목욕탕에서는 넘어짐/미끄러짐 및 감전 사고가, 계단에서는 추락 및 넘어짐/미끄러짐 사고가, 마당/아파트 복도에서는 넘어짐/미끄러짐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고 당사자 관계 및 연령

가정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많이 생활하는 주부와 자녀 관련 사고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외 식구들의 사고발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자의 사고 당시 나이를 보면, 가정내 전체 사고에서 만 6세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사고가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부의 특성은 50대이상 고연령층, 중졸 이하 저학력층, 가구주가 농/임/어업 종사자인 경우, 전일제/고정직 직업을 가진 층,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 단독주택 거주자,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많았다.

3) 사고 경위 및 원인

〈표 1-2〉에서 보면, 사고 당사자가 사고 발생시 하던 행위는 '식사준비 및 관련 활동'과 '놀이/운동/여가 활동'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부들이 인식하는 사고의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본인의 실수/부주의'를 지적하는 주부들이 많아, 가정내 사고 발생원인이 사고 당사자 본인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피해 내용

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찰과상/타박상'과 '찢림/베임' 등의 비교적 가벼운 신체 피해가 많았으나, 적은 사례이지만 '내장손상', 척추/신경 손상, 중독/질식 등 대형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사고를 당해 든 치료비는 치료비가 없거나 1~5만원 이하가 대부분이었으나, 11만원 이상도 3.6% 있었으며, 평균 치료비는 26,300원이었다.

사고로 입은 재산 피해로는 가정내 사고로 입은 재산 피해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사고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용

〈표 1-3〉에서 보면, 사고를 당한 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고 이후 사고예방을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사고 예방조치를 취했다는 경우 보다 많아, 다수의 주부들이 사고 이후에도 동일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부들이 사고 예방조치를 취한 경우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본인이 주의하거나 사고 당사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당부하는 수준의 사후 예방조치가 많았다.

사고 이후 주부들의 안전 의식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하지 않

〈표 1-2〉 사고경위와 원인

명목	구분	비율(%)	명목	구분	비율(%)
사고 경위	놀이/운동/여가	38.4	사고 원인	본인실수	78.0
	식사준비	34.4		타인실수	7.4
	집안손질	7.6		시설물설치잘못	5.2
	세면/목욕	5.5		안전시설미비	3.0
	청소	3.7		집구조결함	2.3
	세탁/다림질	3.1		위험물접촉	1.5
	수면	1.9		안전수칙무시	1.0
	공부/학습	0.6		위험장소접근	0.8
	휴식	0.3		기계/기구결함	0.8
	기타	4.5		계	100
	구분	100			

〈표 1-3〉 사고 조치여부, 내용, 의식변화, 사고없는 이유

명 목	구 분	비율(%)	명 목	구 분	비율(%)
조치 여부	예	29.9	의식 변화	많은변화	30.9
	아니오	70.1		약간변화	46.3
	계	100		별로변화없음	19.6
조치 내용	본인 조심	49.2		변화없음	2.7
	사고자주의	18.9		무응답	0.5
	사고요인 제거	15.7		계	100
	시설개선	8.7	사고없는 이유	주의했음	77.5
	무응답	7.5		운이좋음	22.5
	계	100		계	100

〈표 1-4〉 안전사고 가능성 인식, 높고 낮은 이유

명 목	구 분	비율(%)	명 목	구 분	비율(%)
사 고 가능성 인 식	많다	12.8	높은 이유	안전수칙불이행	45.7
	있는편	40.5		어린이사고가능성	26.3
	별로없다	36.2		사고가능물품사용	13.1
	거의없다	10.2		시설물	9.7
	모름 무응답	0.3		기타	5.2
	계	100		계	100
			낮은 이유	안전수칙이행	60.4
				주거환경안전	31.6
				정기점검	1.5
				기 타	6.5
	계	100		계	100

있지만 사고 경험이 대다수의 주부들의 안전의식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없는 주부들은 사고가 없는 이유가 사고에 대한 주의를 했다고 응답하였다.

가정 안전사고 실태를 볼 때 가정의 안전 사고는 경험자 수나 빈도로 볼 때 적지 않으나 사고는 비교적 경미하므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심만 하므로 가정의 안전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대부분의 사고 원인이 본인 실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정내에 안전의 생활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사고를 예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고 실태로 볼 때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 안전의식

1) 안전 사고 가능성 인식 및 이유

주부들은 가정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주부들이 가정 내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12.8%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다'고 응답했다.〈표 1-4〉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이유로는 안전수칙 불이행/부주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어린이 관련사고 가능성 때문이었다. 안전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주 이유로 평소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내 안전사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주부들의 특성을 보면, 사고 경험이 있는 주부들이 가정내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인식이 높아, 사고 경험이 가정내 안전사고 가능성 인식에 영향을 준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저연령층,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높아, 30대 초반 이하, 고졸이상에서는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더 많은 반면, 40대 이상, 중졸이하 학력 등에서는 사고 가능성이 '없다'는 인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안전 사고 원인 인식과 예방 노력

〈표 1-5〉에서 보면, 가정 내의 안전사고 원인에 대해서, 가정내 안전사고 원인이 '집구조나 건축 자체', '시설/물품'의 문제 때문이 아닌 '안전 수칙 불이행이나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10가구중 7가구가 안전사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가정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내용을 분류해보면 안전사고주의/조심이 제일 높았고 실제 안전점검은 13.1%뿐이었다.

3) 어린이 안전

어린이용 물품을 구입하거나 어린이용 시설을 설치할 때 안전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단연 많았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여러가지 안전용품(콘센트 커버, 미끄럼 방지용, 매트, 옷장 안전걸쇠, 모서리 보호대, 문 안전장치 등)에 대한 주부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표 1-6), 어린이 안전 용품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주부가 더 많았으나, 모르고 있는 경우도 43.0% 있었다.

어린이용 안전용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주부들 미취학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구입/설치하고 있는 안전용품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용 안전용품을 인지하고 있는 주부들 중에 안전용품을 구입/설치하지 않고 있는 주부들이 보다 많았다.

주부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구입/설치한 시설

〈표 1-5〉 사고원인 인식 예방노력 여부 및 내용

명 목	구 분	비율(%)	명 목	구 분	비율(%)
원인	안전수칙불이행	83.6	예방노력	예	69.1
	시설/물품하자	8.3		아니오	30.9
	집구조문제	7.2		계	100
	무응답	0.9	노력내용	조심	74.8
인식	계	100		점검	13.1
				안전시설	4.3
				기타	7.8
				계	100

〈표 1-6〉 어린이용품구입과 안전용품인지

명목	구분	비율(%)	명목	구분	비율(%)
어린이용품구입 안전성고려	최우선고려	44.7	어린이 안전 용품인지 여부	예	57.0
	많이 고려	41.1		아니오	43.0
	거의고려치않음	5.9		계	100
	고려치않음	2.9	어린이 안전 용품구입 여부	예	29.5
	무응답	2.4		아니오	70.5
	계	100		계	100
구입한 어린이 안전용품	미끄럼패드	61.5	안전용품 도움정도	매우도움	46.8
	콘센트커버	39.9		어느정도도움	42.5
	모서리보호대	11.9		별로도움안됨	8.0
	문안전장치	4.9		전혀도움안됨	2.2
	선풍기망	3.5		무응답	0.5
	무릎보호대	1.4		계	100
	보조키	1.4	안전용품 구입않은 이유	필요없음	59.4
	자동차안전의자	0.7		잘몰라서	40.6
	옷장안전열쇠	0.7			
	투명유리창스티커	0.7			
	아파트난간설치	0.7			
	방충망	0.7			
	가스렌지안전장치	0.7		계	100

/물품으로는 '미끄럼 방지용 매트'와 '콘센트 커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서리 보호대, 문안전장치도 설치한 가구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안전용품을 구입/설치한 물품을 기준으로 그 안전용품의 어린이 안전에 도움 정도를 질문한 결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구입/설치한 물품이 어린이 안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응답이 단연 많았다.

미취학 어린이가 있고 안전용품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린이 안전용품을 구입/설치하지 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안전용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안전용품 구입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다양한 안전용

품 개발과 판매 및 이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안전용품 인지 여부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저연령, 고학력 층으로 갈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았으며,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과 사고 경험이 있는 가정의 주부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주부보다 어린이 안전용품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4) 안전 시설 및 물품 선택시 안전사항

입주 예정된 아파트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나 건축자재를 옵션으로 제공하고 가격을 기본 분양가보다 다소 높게 책정 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이의 선택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주부들은 다소

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아파트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별로 보면, 새아파트 입주시 안전사고 방지 시설 선택 의향은 저연령,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높았으며,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새아파트 입주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설계/건축자재옵션을 선택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1-7〉 새아파트 입주시 안전사고방지 시설 선택의향

꼭 선택하겠다	24.8%	70.4%
선택할 생각이 많다	45.6%	
선택할 생각이 별로 없다	23.4%	29.1%
선택할 생각이 전혀 없다	5.7%	
모름/무응답	0.5%	

주부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성능, 주의사항, 사용 방법 등 제품 표시 사항숙지 여부를 제품 종류별로 질문한 결과, 우리 주부들 대다수가 가전제품, 주방용품, 어린이용품 등 가정내 사용 물건 구입시 표시사항을 살펴보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10명 중 6명

이상의 주부는 '꼼꼼히 살펴본다'고 응답해, 주부들의 가정용 제품의 표시사항 숙지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용 제품의 표시사항이 그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충분한지를 질문한 결과, 10명 중 6~7명 이상의 주부들이 제품의 표시사항이 충분하게 또는 어느정도 표시되어있다고 응답했으나, 부족하다는 의견 또한 많았으며, 특히 어린이 용품의 표시사항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다른 제품보다 높았다.

5)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가족간의 대화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안전사고의 예방이나 가정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에 대해 가족간의 대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우리나라 10가정 중 6~7가정 정도가 가정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응답은 35.8%를 보여, 가족간에 안전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 가정도 상당수 되었다.

가족간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대화 내용을 보면 (중복응답), 가정내 가스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안전, 어린이 안전에 대한

〈표 1-8〉 사고예방에 대한 대화

명목	구분	비율(%)	명목	구분	비율(%)
대화횟수	자주한다	15.7	대화분야	가스안전	36.6
	가끔한다	48.5		전기안전	17.8
	별로하지않음	25.8		어린이안전	14.0
	전혀하지않음	10.0		시설안전	7.3
	계	100		화재예방	5.3
구체적대화 (순위별)	가스밸브확인	24.0	기타	약품정리	5.0
	도시가스주의	11.3			14.0
	불조심	5.7			
	전기코드배	5.7			
	가스렌지접근방지	5.4			
	전기조심	5.3			

내용도 비교적 많았다. 구체적인 대화에서도 가스
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불조심으로 나
타났다.

3. 가정 안전 점검 및 실천

1) 가정 안전 점검 실태

가정내에서 전기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실천 실태
를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안전수칙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어린이 감전 예
방용 콘센트 덮개'는 10가구 중 1가구 정도만 설
치되어 있었고, '1개의 콘센트에 여러개 가전제품

연결 사용', '가전제품 비사용시 플러그 분리', 그
리고 '세탁기 접지' 등은 아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 안전에 관해서는 그간 여러 사고 사례로 인
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반적으로 낮은 점검/실천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가스 누출 경보기 설치', '비누 거품 이용 가스 누
출 점검' 등은 40% 이하의 점검/실천율을 보이고
있고, '가스 및 연탄 사용자의 환기장치 설치',
'가스 보일러에 가스누출 차단 기능 장치', '옥외
가스 용기 안전캡 설치' 등도 과반수 정도의 가정에
서만 준수되고 있다.

(표 1-9) 전기

	점검/실천(%)
어린이들의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콘센트에 덮개를 설치했다	11.7
1개의 콘센트에 가전제품을 여러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50.4
여러 가전제품의 전선이 정리가 되어 있다.	85.8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빼 놓는다	52.7
외출시 소등 및 전기/전열기구의 스위치를 잠근다	84.9
100V와 220V를 잘못 사용해 전열기구를 손상시킨 적이 있다	76.7
세탁기를 사용할 때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기도 한다	73.2
세탁기 설치시 반드시 접지한다	56.4
피막이 벗겨진 전기 코드는 테이프로 감는다	74.2

(표 1-10) 가스 안전 점검

	점검/실천(%)
가스렌지 호스가 일부 손상되거나 파손되어 있다.	94.6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했다.	20.2
(가스 및 연탄 사용자) 환기 장치를 설치하였다.	54.8
(연탄 사용자) 연탄 아궁이 및 연도의 상태가 양호하다	64.9
(가스보일러 사용자) 가스 보일러에는 가스 누출 차단 기능이 있다.	51.5
(LPG 가스를 배달 사용하는 경우) 옥외에 있는 가스용기에 안전캡을 씌어 두었다	55.0
비누 거품을 이용하여 가스가 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37.3
가스 기구에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90.5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베란다에서 어린이를 혼
자 놀지 않도록 한다.', '승강기에 어린이 혼자 이용
금지', '계단에 안전 난간 설치' 등은 비교적 잘 지
켜지고 있으나, '날카로운 모서리 안전 조치', '무
명 유리창에 스킨 설치' 등은 낮은 점검/실천율을
보이고 있었다.

화재 예방에 대해서는 '인화물질 어린이에게서
격리', '난로나 콘로 사용할 때 어린이 화상 예방 조
치' 등은 80% 이상의 가정에서 잘 지켜지고 있
으나, '소화기의 수명 연한 확인' 등은 별로 잘 지켜
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가정은 전체의 1/4에 지나지 않았
다.

약품/식품/정리 정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실천도는 높은 가운데, '목욕탕/화장실에 미
끄럼 방지 매트' 및 '채채식 화장실에 어린이용 보
호 덮개 설치' 등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약 사용할 때 마스크 착용'은

61.5%를 보여, 아직 상당수 농민들이 농약의 폐해
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안전 지식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가운데, '소화기 사용법', '인공호흡법' 등 일상 생
활에서 중요한 기본적 응급처치법에 대해서도 40%
에도 못 미치는 주부들만이 알고 있었으며, 특히
'합선/감전 사고시 응급조치법'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세탁기, 믹서기 등 가전제품의 안전 사용법'에
서는 많은 주부들이 알고 있으나, '가정용 가스 기
구의 누출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는 60%정도만이,
'주방에서 식용유에 불이 붙은 경우 대처법', '가스
누출시 신고처 전화번호 및 신고 요령', '합선이나
감전의 원인 및 예방법' 그리고 환자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병원 전화 번호' 인지는 40% 정도, '승강
기 고장시 대처 요령'은 33.3%만이 알고 있었으며,
LNG와 LPG 가스의 차이에 따른 취급 요령'은

(표 1-11) 응급처치법

	점검/실천(%)
화재 발생시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36.4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활용하는 인공호흡법을 알고 있다	28.5
출혈시 지혈방법을 알고 있다	49.5
화재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 대처할 방법을 알고 있다	47.6
합선이나 감전 사고시 응급조치법을 알고 있다	18.3

(표 1-12) 기타 안전 지식

	점검/실천(%)
세탁기, 믹서기 등 가전제품의 안전한 사용법을 알고 있다	84.4
가정용 가스 기구의 누출 사고 예방법을 알고 있다	59.4
LNG와 LPG 가스의 차이에 따른 취급 요령을 알고 있다	20.9
주방에서 식용유가 불에 달아 올라 불이 붙은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42.7
가스 누출시 신고처의 전화번호 및 신고 요령을 알고 있다	42.6
집안에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병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45.7
합선이나 감전의 원인 및 예방법을 알고 있다	33.3



가정에서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먼저 각 가정의 안전사고를 파악하고 안전의식 수준과 행동에 대하여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자료는 국민의 안전문화를 성취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홍보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안전문화는 안전에 대한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중에서도 가정에서의 안전의 생활화가 그 핵심이다. 우선 가정 안전의 생활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찾고 보다 가정이 용이하게 안전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환경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되어진다.

20.9%만이 알고 있었다.

III. 가정의 안전문화 조성방안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로 가정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가정 안전사고는 본 연구조사로 볼 때 대체로 작은 사고이며,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들도 인식하고 있었고 응답자들의 안전 점검과 실천 그리고 안전 지식으로 볼 때 우려할 점이 많이 있고 많은 연구와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안전문화는 안전 의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안전문화는 안전의식과 더불어 행

동이 뒤따라야 하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주부들이 상당수는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은 높으나 안전에 따른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의식에 따른 행동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고 당사자들을 보면 미취학 아동과 주부로 편중되어 있다. 미취학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주부의 안전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보면 사고를 당한 주부는 사회인구학적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연령이 50대 이후, 저학력, 저소득, 가구주가 1차산업에 종사하며, 전일 고정제로 취업한 주부이며, 단독주택에 살며, 읍

/면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사고 경험자가 많았다. 바로 이러한 조건을 갖는 집단에 교육과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교육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집단에 맞는 교재 개발과 홍보 방법도 달라야 하겠다. 우선 연령층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성장한 세대이므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의식주 해결에 급급하여 결여되어 있는 집단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안전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어진다.

둘째, 가정내의 안전 사고 원인에 대해서 가정내 안전 사고 원인이 집 구조 자체, 시설/물품의 문제 때문이 아닌 안전 수칙 불이행이나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보아 교육이나 홍보의 초점을 안전수칙을 이행하는데 두어야 하겠다. 안전수칙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와 교육자료, 홍보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특별히 안전수칙 이행이 안전교육의 핵심이므로 이는 어릴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생활화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우리나라 주부들은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중 7명이지만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10명 중 2명이므로 안전에 대한 의식은 있으나 구체적인 안전 환경은 만들어 놓지 못하므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늘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전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주부들이 왜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나 설치 가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안전 환경이 조성되어야 진정한 안전문화가 이룩되는 것이다.

넷째, 가정내 전기, 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기회사나 가스회사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수요자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기구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들면 전기, 가스 사용고지서에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관련 기구도 소개하는게 바람직하다. 시설 안전과 화재 점검 문제는 반상회보에 구

체적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사례를 고지시켜 주므로 시설 안전과 화재 점검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피해 예방 혹은 피해를 줄이는 행동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다섯째, 응급처치법이나 기타 안전지식이 매우 미흡하므로 학교교육에서는 물론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응급처치법을 보여주고 지식을 자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전문화는 안전에 대한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중에서도 가정에서의 안전의 생활화가 그 핵심이다. 우선 가정 안전의 생활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찾고 보다 가정이 용이하게 안전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환경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되어진다. 안전한 가정 환경과 안전 교육이 잘 되어 있을 때 직장에서도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안전을 고려한 상품을 만들어내며 안전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겠다.

가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미나



유아의 안전교육 지도방안

박연홍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훈련국장)

유아에게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방호하는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고, 안전교육을 통해 유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안전교육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부모나 유아교사들이 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또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안전한 행동이 몸에 배게 하여야 한다.

1. 가정안전의 대두

현대 기계문명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에 편리와 안락함을 가져다주는 반면에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사고를 일으켜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켰던 대형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공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안전이고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안전이란 "위험으로부터 오는 사망, 상해, 및 질병 또는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손해를 방지하거나 극소화시키려는 관리행위"를 말한다. 즉 안전은 노력하여 얻어지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경우와 유사하다. 원인을 보면 위험요소가 있고 사람이 관여하는 것이다. 사고형태를 보면 추락, 전도, 감전, 폭발, 질식 등이 있다. 가정과 사업장의 사고가 다른 것은 재해자의 연령이다. 가정에서의 재해자는 주로 미취학 아동 즉, 영·유아이다. 따라

서 영·유아 특히 유아들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2. 유아 안전교육의 필요성 및 의의

현대의 발달된 문명은 오늘날의 유아들에게 과거 세대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한 여러가지 위험을 주고 있다. 유아는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한 반면 아직 신체기능의 발달이 미숙하므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나 운동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유아는 위험요소에 대한 지식과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하므로 항상 사고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통계청이 밝힌 1-9세 유아사망의 제1원인은 사고이다.(통계청, 1992) 사고유형을 보면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35.9%), 추락(19.6%), 창상(12.7%), 화상(8.7%), 중독(6.3%), 이물 삼입(6.2)의 순서로 나타난다. 유아 사망사고의 추이를 보면 질병에 의한 사망이 크게 줄어들며, 사고에 의한 사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유아에게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방호하는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고, 안전교육을 통해 유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는 것은 사고의 형태별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시설물이나 용품이 안전한 상태가 되도록 법적, 제도적 규제를 만드는 것이다.

안전교육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부모나 유아교사들이 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또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안전한 행동이 몸에 배게 하여야 한다.

3. 유아 안전교육의 내용 및 지도 방법

교육부의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안전교

육에 관련된 목표와 내용이 건강생활 영역에 제시되어 있다. 건강생활은 감각·운동과 신체조절, 건강한 생활 및 안전한 생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안전한 생활에서 사고나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유치원의 시설 및 놀이감, 교통기관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유아들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을 위험요인별로 분류하여 구성하면 ① 시설설비 안전, ② 놀이 안전, ③ 교통 안전, ④ 위험장소 안전, ⑤ 위험물질 안전, ⑥ 유괴·미아 및 성폭력 사고에 의한 안전교육, ⑦ 스포츠 안전, ⑧ 환경·공해에 대한 안전, ⑨ 화재 안전, ⑩ 동물·곤충에 의한 안전 등 10가지로 정할 수 있다.

안전교육 지도방법에 있어서는 ① 주제선정에 따른 통합적 접근방법에 의한 안전교육, ② 상황에 근거한 안전교육, ③ 부모에 의한 안전교육, ④ 전문단체에 의한 안전교육 등의 종류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제선정에 따른 통합적 접근방법에 의한 안전교육

통합적 접근방법이란 유아들에게 지식이나 기술, 태도를 가르칠 때 국어, 수학 등 교과목으로 분리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늘 경험하는 상황을 학습 경험으로 활용하여 그 경험을 통해 유아들이 전인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표적으로는 주제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단원중심 접근법이다.

화재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법을 이용한 안전교육의 예를 들면 다음 <표 2-1>과 같다.

나. 상황에 근거한 안전교육

일상생활 중에서 안전과 관계되는 경우, 예를 들면 유치원 또는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사회적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여 유아들이 뉴스를 통해 안다든지, 견학을 간다든지 하는 경우 그 상황을 이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표2-1)

활동의 종류	활동의 내용
이야기 나누기	• 화재의 원인과 예방방법, 화재시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해 교사와 유아들이 충분히 토의 한다.
실내 자유선택 놀이	• 화재의 원인과 예방방법, 화재시의 대처방법 등에 관해 조작놀이 게임을 한다. • 블록과 모형 자동차를 이용하여 소방서 놀이 놀 한다. • 소방관의 불끄기 역할 놀이를 해본다. • 상자 좌를 이용한 소방차 꾸미기 활동을 한다.
노래 부르기	• 불조심에 관계된 노래를 배운다.
동화 듣기	• 불조심에 관계된 동화를 듣는다.
요리하기	•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전열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다.
견학	• 소방서 견학을 한다
실험하기	• 소화기의 사용방법을 익힌다.
운동	• 화재가 났을 때 기어가기, 몸에 불이 붙었을 때 끄기

이러한 접근방법은 유아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또는 경험하게 될 상황을 근거로 하므로 동기 유발이 용이하고 실제와 직접 연결이 된다.

다. 부모에 의한 안전교육

부모에 의한 안전교육은 우선 부모들이 안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적절하게 유아들에게 지도하여야 한다.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식의 교육방법으로는 교육효과가 적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여러 교육기관이나 단체의 교육프로그램에 가정안전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 전문단체에 의한 안전교육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해 주는 전문단체에 의뢰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예를들면 한국안전생활교육회에서는 회원으로 가입한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1년에 2회씩 4주제에 대한 교육을 2시간정도 진행하는데 주제의 선택은 유아교육기관에서 한다.

4. 안전교육 자료의 개발, 보급

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안전문화추진본부에서는 유아교사용 안전교육지도를 개발 완료하여 전국 유아교육기관 및 교육유관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 지도서의 구성은 제1부 총론에 유아안전교육의 필요성 및 의의, 유아 안전교육의 개념, 유아의 발달 특성과 안전교육, 유아 안전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제2부 각론에 시설 설비 안전, 놀이안전 등 앞에서 살펴본 10가지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제3부 응급처치 및 간호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질병의 예방 및 간호, 안전사고의 제도적 대처방안을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금년도의 이론위주의 지도서에 이어 '97년도에는 그림책, 비디오 프로그램 등 실제 유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 배부할 예정이다.

안전공단과 안전문화추진본부에서는 유아 외에 초등학교 어린이 및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고예방

을 위한 안전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였다.

• '95년도에 초·중등교사를 위한 안전교육지도안 2종 60,000부를 개발, 보급하였고, 학교안전생활 VTR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교육방송을 통해 방영하고, 13,000부를 복제하여 각급 학교에 배부하였다.

• '96년도에는 사례위주의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교육지침서를 개발 47,000부를 전국 초등학교에 배부하였고, 안전교육용 VTR 2종을 지난 11월 1일과 11월 2일 교육방송을 통해 방영하였으며, 전국 각급 학교에 배부하기 위해 복제작업 중이다.

지금까지 가정안전중에서 유아의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이번에 여협에서 조사한 가정 안전사고 실태에서 보듯이 미취학 아동의 사고경험비율이 50.7%를 차지하는 등

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는 유치원에서는 사고가 나면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지나쳐 버리지 말고 반드시 원인을 살펴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고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구할 수 있고 가정의 행복이 보장된다.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단체, 기관에서는 안전교육에 관한 자료를 많이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간단히 조치하면 방지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몰라서 방치한 결과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법

한정석 (연세대 안전간호연구소장)

집안에서 사용한 물건은 사용후 잘 간수하고 아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치워야 한다.
어린이 살기 좋게 만든 공간에서 아이가 안전하게 놀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안전사고의 예방책이다.

1. 생활안전문화 정착은 가정에서부터

일반적으로 가정이란 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정에서 유아의 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사고로 인하여 귀한 목숨을 잃거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인으로 살고 있음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약 90%가 미연에 예방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안전의식은 하루아침에 심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일찍 안전의식과 자신의 보호능력이 성장되어야 한다. 어린이는 부모나 양육하는 사람에 의하여 영향을 크게 받고 잠정적으로 어른의 행동과 태도를 익히고 모방하고 심지어 작은 실수까지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별히 유아기는 교육

이 가장 잘 되는 시기이다. 어린이 눈에 비친 그 모든 것, 경험한 것 등이 모두 머리에 남게 된다.

가정안전 문화정착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안전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린이가 훗날 성장하여 사회인이 되었을 때도 안전이 생활화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정직한 사회인이 된다.

부모의 안전의식 결여, 무지와 무관심은 곧 자녀의 안전문제와 직결된다. 자녀의 안전교육은 부모의 개입 없이는 안된다.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이 예방의 핵심이다.

우리의 속담중 '세살적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 있다. 안전수칙은 버릇이 제시되어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 적다. 위험에 대한 인식이 없다. 설마하는 낙천주의적인 사고, 의식구조의 변화를 갖게 함이 생활안전교육의 핵심적인 목표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2. 미취학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법

보석은 치위도 위험한 물건은 치우지 않는 무관심이 사고를 낳는다. 집안 어디에도 빈 공간은 없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가구가 필요하며, 편리하게 살기 위한 살림기구가 필요하고 물, 불을 사용하는 도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필요해서 공간을 채워놓은 모든 기구들이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위험한 물건으로 둔갑하곤 한다. 대부분의 가정에도 자녀의 수가 적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과잉보호를 하는 경향이 있다. 위험한 상태로 방치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신경과민이 될 정도로 불안해 하면서 아이 뒤를 쫓아 다니라는 것은 아니다.

집안에서 사용한 물건은 사용후 잘 간수하고 아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치워야 한다. 어른이 살기 좋게 만든 공간에서 아이가 안전하게 놀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안전사고의 예방책이다.

(1) 부엌

엄마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동시에 돌보아 주어야 할 아이가 많이 노는 곳이기도 하다. 부엌은 여러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뜨거운 물이나 음식, 조리용 기구 등은 잠깐 사이에 적지 않은 사고를 낼 만한 것들이다.

① 가스레인지: 요즘 가스레인지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아이가 스위치를 돌리더라도 불이 붙지 않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음식물이 끓고 있을 때, 손잡이가 달려 있을 경우 손잡이를 아이 손이 닿지 않는 뒤쪽으로 돌려놓는 배려는 해야 한다. 아이가 잡아 당겨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② 칼과 가위: 아이에게는 늘 칼과 가위가 위험한 물건이며 잘 다루어야 한다는 반복적인 교육을 시킨다.

③ 싱크대: 싱크대 서랍은 아이들에게 가장 재미있는 곳이다. 미닫이문과 여닫이문 모두 잠그는 장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④ 식탁: 식탁을 고를 때 모서리가 뾰족한 것은 피한다. 아이가 이마를 찌거나 턱을 찌를 위험이 있다. 모서리가 뾰족하다면 고무나 형질을 둘러가며 부착시킨다.

⑤ 부엌 바닥: 부엌 바닥에는 물이 쏟아지기 쉽다. 그냥 놔두면 아이가 넘어질 염려가 있으니 즉시 닦는다.

(2) 어린이방

아이에게는 가장 편안한 놀이 공간이다. 깨진 장난감이나 위험한 물건들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① 창문 밑: 창문 밑에는 가구나 쿠션 등을 놓지 않아야 한다. 딛고 올라서 창문 밖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② 그네: 문 위에 설치하는 그네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사가 제대로 조여있는지, 끈이 온전한지, 매듭은 잘 묶여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욕실

욕실은 물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① 세제: 타일에 광택을 내는 세제, 변기소독용 세제, 표백제 등 세제는 잠금장치가 있는 박스에 넣어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② 변기: 변기는 뚜껑을 반드시 닫아두는 것이 좋다. 아이들이 손을 집어넣고 장난을 하다가 거꾸로 박히는 사고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③ 욕조: 욕조의 바닥은 미끄럽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다. 고무매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④ 바닥: 늘 물기가 있어 아이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다. 매트를 깔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대걸레로 늘 물기를 닦아놓는 것이 좋다.

⑤ 콘센트: 물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감전사고의 위험이 많다. 꼭 안전마개를 설치한다.

(4) 거실

① 문: 부엌이나 베란다로 통하는 문은 대부분 유리로 되어있다. 투명한 유리일 경우에는 아이가 빈 공간인 줄 알고 부딪혀 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리 위에 스티커를 붙여 물체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② 계단: 계단마다 카펫을 깔아야 아이가 넘어져 떨어지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또 계단의 난간은 폭을 좁게 하여 아이가 그 사이로 빠지지 않도록 한다.

3. 가정에서의 어린이 응급처치

구급차는 119번에 전화 요청하면 언제든지 즉시 오지만 구급차 수의 한계로 인하여 때로는 지연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중환자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 우선 119 전화가 연결되면 당황하지 말고 구급인 것을 밝히고 요령있게 사고인지, 병인지, 부상자의 수, 어른 혹은

아이, 성별,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고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기 쉽게 알려 준다.

(1)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은 건성화상(불에 의한 것), 열상(뜨거운 물이나 기름에 의한 것), 화학적 화상(화학약품에 의한 것), 그리고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가 있다. 화상을 입으면 화상부위로 부터 단백질, 체액손실이 크며 이로 인하여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쇼크에 빠진다. 때로는 오줌이 나오지 않게 되어 요독증의 위험이 있다.

아이의 화상은 어른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피해 정도가 크다. 겉피부만 화상을 입었다해도 번지는 정도가 넓어진다거나 상처가 작아보여도 깊은 곳까지 화상을 입으면 중증임을 알아야 한다.

① 눈이나 귀, 코 주변에 입은 화상

얼음을 부드러운 비닐봉지에 넣고 찬물에 적셔 천이나 작은 수건에 말아서 화상부위를 차게 해준다.

② 손발에 입은 화상

흐르는 수도물에 상처부위를 대어 식혀준다. 이때 수도물의 압력은 화상상처를 자극하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얇은 천이나 수건을 대어준다.

③ 신체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입은 화상

욕조에 물을 받아 아기를 그대로 담가둔다. 이때 눈, 코, 입, 귀 등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물에 있을 때 잡아주고 결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잠시 아이결을 비운 사이에 익사 가능성도 있다. 옷을 입은 채로 화상을 입었다면 옷은 절대로 벗겨서는 안 된다. 피부나 살갓이 즉시 물러 버리고 화상의 피해는 더 커지기 때문이다. 신체 전반을 담가 충분히 식혀준 다음 가위로 잘라 벗겨주거나 화상 상처에 옷이 붙어 있으면 그대로 두고 병원에 간다.

④ 감전사고

감전이 되면 쇼크로 몸이 떨리거나 경련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호흡이나 심장이 멎을 수가 있으며

의식장애가 생긴다. 일단 화상의 부위가 크든 작든 제일 먼저 상처부위를 차게 해준다. 이유는 통증을 감소시켜주고 상처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자세한 처치내용은 우선 곧바로 전원을 끈다. 전원을 끌때 옷 혹은 타월로 손을 감거나 고무장갑을 끼고 전원에서 코드를 뺀다. 감전된 사람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한 다음 의식이 있을시에는 보온하고 안정시키며 호흡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인공호흡을 하면서 구급차를 부른다.

(2) 목구멍에 음식물이 걸렸을 때

① 생선뼈:땀밥을 그대로 목으로 삼키게 하면 대개 가시가 밤에 땀에서 넘어간다. 간혹 가시가 그대로 밥사이에 끼어서 남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젓가락이나 숟가락 손잡이를 이용하여 혀를 가볍게 눌러서 가시가 보이면 족집게나 핀셋으로 뺀다. 땀때 가시가 부러지거나 젓가락으로 상처를 입힐 염려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토하면 빠질 수도 있다.

② 떡종류:특히 찰떡, 인절미 같이 끈기가 있는 것은 등을 두드려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때는 손가락을 목안에 집어 넣고 차근차근히 빼낸다.

③ 땅콩:설명한 대로 처치는 했어도 안되면 이비인후과로 데리고 간다. 땅콩이 기관지, 폐에 들어가면 아주 무서운 사고가 발생한다.

(3) 넘어져서 이가 부러졌을 때

활동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곧잘 넘어져서 입의 상처와 함께 이에 손상을 받는다. 이가 손상을 입어 흔들리거나 이가 부러져서 잇몸에 살짝 달라붙어 있을 때 함부로 손으로 만지거나 흔들면 더욱 악화된다. 숨이나 가제를 등글게 말아서 물게한 후 치과에 간다.

(4) 바늘, 유리, 칼, 나무조각, 못 등에 찔렸을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는 즉시 병원으로 간다.

- 녹슨 못, 더러운 것에 찔렸을 때

- 작은 유리파편에 찔리거나 파편이 상처부위에 붙어있을때

- 바늘이나 유리끝이 부러져서 몸에 남아 있을 때
① 나무조각이나 칼, 유리조각에 깊숙히 찔렸을 때 뽑지말고 옷을 가위로 잘라낸 후 찔린 물건의 주위를 깨끗한 천으로 덮고 붓대로 고정시킨 후 즉시 병원으로 간다. 만일 출혈이 있을 때 지혈은 반드시 시켜야 한다.

② 가늘게 찌개진 막대기나 판자, 장미꽃 등에 스쳐서 찔렸을 때

- 가시가 밖에서 보이면 족집게나 핀셋으로 뽑는다.

- 가시끝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가시주위를 누르든지 구멍이 있는 토르나 동전을 대고 뽑는다. 그래도 빠지지 않을 때는 바늘을 성냥불에 달구 소독한 후 바늘로 상처 입구를 넓혀서 족집게로 뽑는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깨끗이 소독한 후 거즈와 반창고로 고정시킨다.

APT 및 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시설

이덕영 (현대산업개발 이사)

가정안전에 관한 분야중 APT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추락, 전도와 미끄러짐, 감전, 화재사고 등의 예방시설과 어린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놀이터 시설의 설치 기준을 숙지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국민소득은 선진국 수준의 문턱에 도달하였으나 삶의 수준은 아직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 안전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참사로 안전문화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어 가는 이 시점에 가정안전에 관한 분야중 APT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추락, 전도와 미끄러짐, 감전, 화재사고 등의 예방시설과 어린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놀이터 시설의 설치 기준을 숙지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1. 공용계단

- (1) 높이가 2M를 넘을 시는 2M이내에 너비 120cm이상인 계단참 설치
- (2) 폭:120cm이상, 단높이 18cm이하, 단너비 26cm이상
- (3) HANDRAIL:간살간격 10cm이내, 높이 90cm이상
- (4) 창대 높이:마감에서 110cm이상

- (5) 미끄럼방지시설:고무 또는 황동제 논스립 (폭 50mm)

2. 발코니

- (1) 간살간격:10cm이내
- (3) 재질:철근콘크리트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

3. 현관, RAMP, 주차장

- (1) 바닥 화강석은 미끄럼방지용 잔다듬 처리
- (2) RAMP경사도 1/8이하, 바닥은 조면 처리
- (3) 주차장 RAMP의 차량충돌 방지용 연석설치 (폭 30cm, 높이 10-15cm)
- (4) 주차장 벽면:충돌방지용 PAINT(H:1M) 마감

4. 옥상, 지하구조물 개구부

- (1) HANDRAIL높이:110cm이상

- (2) 옥외계단: HANDRAIL(높이 90cm이상)단
근 등받이 철물설치

5. 전기, 화재 안전시설

(1) 화재 분전반

- ① 누전차단기- 설치- 누전시 0.03초 이내에 차
단기 작동
- ② 과전류차단기- 용량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차
단기 작동
- ③ 분전반내에 TEST 버튼으로 월 1회회정도 이
상유무 파악

(2) 콘센트

- ① 회전날개판 적용, 방우형 cover 부착
- ② 차후적용 예정: 개별 누전차단식, 노출 접지단
자식

- (3) 등기구 - 크린 아크릴카바, 전자식 안정기적
용

- (4) 홈 오토메이션 - 가스감지기능, 화재감지기
능

(5) 화재 감지 SYSTEM

- ① 감지기-정온식 감지기(주방), 차동식 감지기
(거실, 침실), 연기식 감지기(복도,통로)설치

6. 놀이터 시설

(1) 놀이터 바닥재료

- ① 모래 30cm이상 포설, 추락시 보상 높이 2.5M
- ② 고무매트: 미끄럼에 의한 화상우려, 보상 높이
1.5M로 위험
- ③ 나무껍질이나 톱밥: 벌레의 서식, 유리,못 등이
섞여 위험 상존

(2) 시설물

- ① 틈새는 8mm이내 25mm이상
- ② 모서리: 50° 이하의 예각 금지

(3) 돌출부위

- ① 어린이 키의 범위 내에 있어서는 안됨

(4) 사다리

- ① 핸드레일 높이: 600mm~800mm,
간격: 500mm미만
- ② 기울기: 65°~75°
- ③ 손잡이 시작부위: 600mm 높이에 위치

(5) 그네

- ① 앞뒤의 유격거리: 2M정도 확보
- ② 그네사이의 거리: 700mm이상유지
- ③ 시트폭: 35mm~500mm
- ④ 낙상에 대한 안전책으로 움직이는 범위를 60°
이내의 각도와 2M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움직이게 할 것

(6) 미끄럼대

- ① 외곽에서 최소 1.5M이상
- ② 토출구 끝에서 2M이상 마지막 부분은 지표면
에서부터 높이 350mm이하 유지

(7)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향

- ① 견고하고 안전해야하며, 어느 한 부위의 파손
이나 붕괴를 대비하여 2차 보완장치로 안전성
을 확보하여야 함
- ② 놀이터 배치시 투시가 막히지 않고 주차장과
접하지 않게 설계,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H: 1.2~1.5M) 및 보호 FENCE설치

유아 안전사고 및 예방

윤강림 (와이케이물산 대표)

안전의식과 주의만으로 곳곳에 방치되어있는 위험요소들로부터 정말 안전하게 우리의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미흡함과 불안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간단하고 손쉬운 안전장치의 설치만 이루어진다면 이같은 걱정과 불안이 훨씬 적어질 것은 물론,
사고예방의 차원에서 국가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OECD 가입에 따른 경제 사회질서의 변화를 통
해 "선진국형 생활"로의 삶의 변화가 현실로 다가오
는 시점에서 어린이(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과
안전의식의 필요성은 선진국형의 수준으로 진입하
는 첫 단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지난 7월
26일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안전 특별법"을 추진한
다고 발표함에 따라, 어린이에 대한 보호와 관심 특
히,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어린이(유아) 안
전사고에 대한 예방이야말로 선진국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볼수 있다.

1.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지난 8월 소비자보호원이 전국의 365가구를 대
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어린이(유아)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① 응답자의 44.6%가 집안에서 안전사고를 경험
했으며, 이들의 연령은 모두 7세 미만의 어린이였
다. 그리고 사고를 당한 장소는 방 33.6%, 거실
27.4%, 주방 17.2%, 욕실 5.8%로 나타나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이 실제로는 사고의 다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사고의 주 연령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2-

3세 어린이들(45.2%)에게서 주로 일어났으며, 이
는 부모들의 주의와 간단한 안전장치만 설치되어 있
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이다.

③ 어린이와 관련이 없는 화장대, 문갑, TV, 가스
렌지, 전기콘센트 등의 가재도구에 의한 사고가
23.6%로 나타났다.

④ 보호자가 가정 내에 없을 때(32.9%) 보다는
보호자와 함께 있어도 관심소홀이나 부주의로 빚어
지는 사고가 67.1%로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유의해볼 필요가 있다.

⑤ 그러나 이들 보호자중, 창고, 부엌, 베란다 등
가정내 위험구역에 대한 어린이 출입을 방임하고 있
는 경우도 34.6%에 달했다.

이밖에도 서울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도, 올들어 8월말까지 어린이 안전사고로 출동한 건
수는 1030건으로 하루평균 4.3건이 발생했다고 한
다. 이는 95년 한해동안 어린이 안전사고로 출동한
824건(하루평균 2.3건)보다 31%나 늘어난 수치이
며, 올해의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방문이 잠겨
간헐한 경우"가 628건(60%)으로 가장 많았다.

2. 어린이(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 치의 필요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내의 안전사고는 곳곳에서 예고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와 안전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과연 안전의식과 주의만으로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위험요소들로부터 정말 안전하게 우리의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미흡함과 불안함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간단하고 손쉬운 안전장치의 설치만 이루어진다면 이같은 걱정과 불안이 훨씬 적어질 것은 물론, 사고예방의 차원에서도 국가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주)와이케이 물산은 유아안전용품의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유아안전용품 전문회사인 Safety 1st사와 독점계약을 맺고 판매 및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선보인 유아 안전용품은 120여 가지가 되며, 앞선 사례발표에서도 보았듯이 사고 다발지역인 방, 거실, 주방, 욕실 등에 대한 안전용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모든 제품들은 "안전"이란 컨셉과 연관되어 있다는 게 큰 특징이다.

3. 유아안전용품 소개

◆ 방과 거실에서의 사고가 과반수 이상(61%)을 차지했는데,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사용하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1) 콘센트 커버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이나 젓은 손으로 장난치다가 발생할 수 있는 감전사고를 예방한다.

(2) 모서리 보호대

테이블이나 가구의 뾰족한 모서리를 감싸주어 아이들의 이마와 얼굴을 보호한다.

(3) 방문 고정 장치

방문을 벽면에 고정시켜 아이가 방문을 여닫지 못하게 하여 문틈에 손이 끼거나 방문이 잠긴 경우를 방지한다.

(4) 코드홀더

각종 가전제품의 전선을 모아서 벽면에 가지런히 정리해주어 전선에 걸려 넘어지거나 가구의 손상을 예방해준다.

(5) 다기능 안전문

방의 문틀에 설치해 주면 아이가 위험한 곳으로 나오지 못하므로 엄마들이 안심하고 집안일을 할 수 있다.

(6) 발코니 안전네트

베란다의 난간에 부착시켜 추락사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7) 침대안전레일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주방

(8) 렌지 수위치커버

가스렌지 스위치에 뚜껑을 씌워서 아이가 스위치



를 돌려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한다.

(9) 가스레인지 안전대

가스레인지 위에 부착하는 내열성이 강한 안전대로 가스와 끓는 냄비로부터 아이를 보호해 준다.

(10) 싱크대 잠금장치

칼이나 식기가 들어있고 아이가 손쉽게 열 수 있는 싱크대의 양쪽 문고리에 연결시켜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한다.

◆ 욕실

(11) 미끄럼 방지매트

욕조나 욕실 바닥에 부착하여 미끄러짐을 예방할 수 있고, 부착식 스티커라 쉽게 떨어지지 않으며 색

깔과 모양이 다양해 장식효과도 함께 한다.

(12) 목욕의자

앉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를 엄마 혼자서 쉽게 목욕시킬수 있는 의자로, 욕조바닥에 부착시킨 뒤 아이를 앉히면 아이가 넘어지지 않으며, 360도 회전을 이용하며 목욕시킬 수 있어 편리하다.

(13) 변기 잠금장치

물이 고여있는 변기를 뚜껑을 덮은 뒤 고정시켜, 아이가 빠지거나 장난치는 것을 예방한다.

(14) 미아방지끈

아이와 엄마의 손을 묶어주는 탄력밴드로, 야외에서 사용이 간편하고 미아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유아 안전사고와 안전용품

김태진 (신세계백화점 BUYER)

연가상품 및 판매 빈도를 분석해 보면, 잠그고, 잠여넣지 못하게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는 등 기초적인 제지 장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이에게 일어나는 사고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이 집안에서의 사고라고 들었다. 유통업 종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용품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근래에 이러한 위험방지 또는 보호용품이 소개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유통업 관점에서의 의견을 기술

하고자 한다.

신세계 백화점에서는 지난달 유아 안전용품만 별도로 상품을 구성하여 제품소개 및 판매 행사를 전개한 바 있으며 당초 일주일 계획으로 상품을 전개하였으나, 예상보다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서 행사를 일주일간 연장한 바 있다. 이때의 판매 자료를 기초로 한 고객분석, 상품분석을 말하고자 한다.

1. 구매고객 성향

〈표2-2〉

-25세	26-30세	31-35세	36-40세	41-45세	46세-	합계
19	42	102	216	35	6	402명
5.9%	13%	32%	36.2%	10.9%	2.0%	100%

2주일간의 판매행사 동안 구매한 고객의 연령별 판매동향을 분석하여 안전용품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하였다. (표2-2)

구매자 연령별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31세-40세 주부 계층이 전체 구매자의 68.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계층은 일반적으로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를 가진 주부층이라고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30대 초반보다 30대 후반의 구성비가 더 높다는 것이다. 추측컨대 30대 초반 계층은 안전용품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도가 높으나 이의 적극적인 활용에는 다소 소홀한 듯하고, 반면에 안전사고의 경험이 있거나 경험적으로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는 30대 후반 계층이 안전용품의 활용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상품 판매 동향

판매현장에서의 안전용품의 판매 빈도를 기준으로 한 베스트 상품(인기상품)을 분석해 보면 (표2-3)과 같다.

인기상품 및 판매 빈도를 분석해 보면, 잠그고, 집어넣지 못하게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는

〈표2-3〉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콘센트 커버	모서리 보호대	서랍 안전 장치	창문 고정 장치	스토브 가드	걸쇠	비디오 커버	오븐 스위치 커버	목욕 의자	미끄럼 방지 매트

등 기초적인 제지 장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방용품, 화기, 가스, 유리창, 베란다 등에서 유발될 수 있는 대형사고의 방지 차원보다는 기초적이고 호기심에 따른 충동구매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듯한 상품 구매 성향을 보이고 있다.

3. 상품 개발 및 유통

가정내 안전사고 특히 유아나 아동에게 집중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품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보편화 시켜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다양한 제품이 소개되고 있지 못하며 고객에게 다소 생소한 상품 장르로 느껴지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 유아용품 전문업체인 아가방외에 몇몇 업체가 콘센트 커버, 코드홀드 등 몇가지 제품을 백화점과 대리점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수준이며, 다행히 최근에는 몇몇 업체가 안전상품을 수입하여 고객에게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까지 상품의 폭과 깊이가 좁거나 얇은 실정이다.

좀 더 많은 국내 생산업체가 이런 유익한 제품의 생산과 개발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하는 바램이며, 백화점에서는 이러한 상품을 적극 발굴하여 고객에게 제안 홍보토록 해야겠다.



매스컴에 비친 여성

오전 토크 쇼 프로그램

모니터 결과 주부에 대한 인식은 예전이나 다름없이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세 방송사간의 차별성도 없음이 지적되었다. 더불어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요일별로 주제를 달리하여 너무 여러가지 내용을 다루는 것도 혼란스럽고 또한 주제에 따라 질적인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 모니터회는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방송국의 오전 8:00-12:00 사이의 토크 쇼 프로그램을 모니터하였다.

토크 쇼 프로그램은 저렴한 제작비용에 비해 어느정도 시청자 확보가 보장된 점으로 인해 방송사에서 즐겨 선택하는 형식이다. 그중에서 오전 토크 쇼는 거의 주부를 주시청층으로 겨냥하여 만들어진다. 그래서 TV에서는 주부들의 아침시간을 어떤 내용으로 유도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진의 주부에 대한 인식을 가늠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 모니터 결과 주부에 대

한 인식은 예전이나 다름없이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세 방송사간의 차별성도 없음이 지적되었다. 더불어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요일별로 주제를 달리하여 너무 여러가지 내용을 다루는 것도 혼란스럽고 또한 주제에 따라 질적인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KBS1 <아침마당> MC 이상벽, 정은아

'아침마당'은 KBS1 아침 토크

쇼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다. 그동안의 연륜이 말해주듯이 안정된 진행, 진행자와 출연자간의 적절한 호흡으로 시청자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모니터 기간 동안 몇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다.

'목요 초대석'의 연극배우 오현경, 성악가 신영옥은 정상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극복한 내용을 곁들이고 있긴 하지만 잡다한 신변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이야기 끝에 공연일정 소개, CD 발매 등을 알리는 것은 홍보

KBS1	KBS2	MBC	SBS
아침마당	이제전의 독점여성	두여자	이경실의 세상을 만나자
엄영란, 이태림의 사랑방	10시 임성훈입니다	한선교의 좋은 아침	

를 위한 출연이라는 느낌을 주었지만 문화광고라는 측면에서 문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바당기획'에서는 요즘 시어머니의 며느리살이가 주제였다. 고부간의 갈등이란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로 시어머니의 낯두리를 늘어놓는 듯한 진행이었다. 결국 고부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이끌어가기 보다는 시어머니가 느끼는 위기감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오히려 방송에서 그런 위기감을 부추기는 느낌이었다. 요즘 신세대 며느리들이 전통적인 며느리상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제까지의 고부관계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단지 옛날같은 시어머니 노릇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불평을 늘어놓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또한 며느리살이가 정말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얼마나 어떻게 만연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어야 한다. 그리고 고부간에도 잘못된 관습은 고쳐나가면서 같은 여성으로서 유대감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부부초대석'은 부부의 이야기를 조심스러우면서도 솔직하게 잘 다루고 있으며 상담역 역시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하고 있다. 전문가의 바람직한 부부상 제시도 유익했다.

'그 사람이 보고싶다'는 보통사

람들의 애절한 사연과 함께 보고 싶은 사람을 직접 찾아 만나게 해 줌으로써 바람직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이외에 '아침마당'은 오랜 연륜에 비해 새로운 시도가 부족하여 내용이나 질적인 향상은 더디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아침마당'은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노련한 진행이 돋보이며 남녀 진행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편안하게 보인다. 특히 여자진행자, 정은아의 역량은 타 프로그램의 여자진행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대개 공동진행일 경우 여자 진행자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입지를 스스로 세우려 하기 보다 남자진행자의 보조자로 만족하거나 미모만으로 때우려는 안이한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해 정은아는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개척하고 굳건히 지키고 있어 보기 아름답다.

KBS2 <이계진의 독점여성> MC 이계진, 이금희

'내 딸 어떻게 키웠는데...' (12/3)는 너무 주관적인 내용으로 '딸가진 죄인'이라는 표현도 거슬리는 부분이었다. 요즘 부모들이 지나치게 자신의 자식만 귀하게 여겨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음도 돌아봐야 한다. 물론 아직도 아들가진 부모들의 자세가 더 문제가 되고 있지

만 딸가진 부모도 자신과 딸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재결합을 원하는 부부문제를 다루면서(12/4) 여자만 출연하고 남자는 출연하지 않은 점은 문제 삼지조차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남녀가 대등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얼굴을 가리면서까지 개인의 고민을 들추어내는 점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물론 전문상담소나 정신과 상담이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TV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결론은 언제나 편하여 해결책은 없다. TV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라기 보다 자신의 프로그램에 이용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기쁜정 날은정' (12/5)이라는 주제의 편지사연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주제와 동떨어진 내용도 있었다. 처녀가 장애아를 기르는 사연은 감동적인 사연이었지만 후처로 들어가서 자신의 아이 낳기를 소망하는 사연은 주제와 맞지 않았다.

이한우 부부 초대(12/6)는 너무 식상하고, 부인이 남편의 직업을 바꾸어 해보는 코너에서도 남편과 부인이 서로 역할을 바꾸어 보는 것이 아니라 부인만 남편의 일을 체험해 보고 남편은 부인 옆에서 지켜보게 했다. 이것은 원하는 바가 너무 편하다. 남편이 얼마나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가, 부인

은 그런 남편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이미 정해진 답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제목은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보수적이고 복고적이다. 진행 또한 이계진이 주도하고 이금희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다. 두사람의 공동진행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에 이계진 한사람의 이름만 부각시킨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KBS2 <엄앵란 이택림의 사랑방> MC 엄앵란, 이택림

초대손님은 연예인 일색으로 구봉서, 이주실, 유인촌, 김성녀 등이다. 여성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가정사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연예인들의 신변잡담으로 일관한다. 연예인들의 살아온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주부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아닐 것이다. 이는 쉽게 시간을 때우려는 제작일 뿐이다. 특히 구봉서 편에서는 아침 뉴스에 부정연예인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점이 지적되었다. 연극배우 이주실은 암을 선고받은 본인은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성숙된 태도를 보이는데 비하여 진행자가 감정조절을 못하고 울음을 보이는 것은 미숙함으로 지적되었다.

진행자 중 엄앵란은 살아온 경험도 풍부하고 비슷한 타 프로그램에서 쌓은 경험으로 주도적인

여성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가정사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연예인들의 신변잡담으로
일관한다. 연예인들의 살아온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주부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아닐 것이다.
이는 쉽게 시간을 때우려는
제작일 뿐이다.

진행을 하는데 비해 이택림의 진행은 어설피고 어색한 면이 보인다.

MBC <10시 임성훈입니다> MC 임성훈

12월 4일 방송에서 뚱뚱한 여자가 출연해서 공포의 삼겹살이지만 남편사랑은 여전하다고 하자 임성훈이 '그러면 오늘 저녁에 맥주 한잔하세요. 배의 삼겹살을 안 주삼아서요'라는 답을 했다. 여자의 뚱뚱함이 남편의 사랑과 연관지어 화제가 되는 것도 문제이고 진행자의 멘트도 끔찍하다. 임성훈은 진행자로선 프로이다. 프로답게 방송에서는 방송에 알맞은 언어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2월 5일에는 스타와의 전쟁이라면서 드라마 '미망'의 출연자인 최불암, 채시라, 홍리나와 함께 '사랑한다면'의 심은하, 박신양, 독고영재가 출연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출연자들로 인해 진행자가 힘겨워하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분위기도 산만했다. 자사 드라마 홍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야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꼭 필요하다면 각 드라마에서 한명씩만 나와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그리고 가장 연장자이고 선배격인 최불암은 후배들에게 계속 반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방송은 사적인

공간이 아니므로 아무리 어리다 해도 존재감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이다. 홍리나의 변신 연기라고 보여주는 장면이 모두 벗는 장면 뿐이어서 연기력의 변신이 아니라 벗는 장면 모음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진행자가 매번 자사 프로그램을 선전하는 것도 그렇고 독고 영재의 태도도 시청률에 목숨걸고 구걸하는 것 같아 보기에 민망하였다.

12월 6일 살맛나는 세상에서 연예인 달은팔 주부선발대회, 전국합기도선수대회 우승자 소개 등은 소모적이고 가치없는 코너이다. 계속 가벼운 내용들을 내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7년동안 준비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700년 전의 약속'을 시간에 쫓겨 대충 소개하는 것도 주부들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이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프로그램은 소홀히 취급하면서 가벼운 주제 중심인 구성을 보면 주부들의 관심사에 대한 편견과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MBC <두여자> MC 양희경, 장윤정

12월 3일 출연한 텔런트 양택조는 진행자들에게 반말투고 양희경의 '술마시는 거 매일 마셔요?'라는 질문에 '미쳤어요?'라는 답을 했다. 아무리 사적으로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일단 방영되는 프로그램에서 만났을 때는 공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



해야 하는데 우리사회의 방송종사자들은 그런 예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런 태도는 시청자를 안중에 두지않고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된다. 때와 장소를 가릴줄 아는 최소한의 양식은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것이지만 특히 방송출연자들은 이점을 확실히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12월 4일 '45살의 결혼 팡파르'에서 연하의 남자와 결혼한 여자의 이야기나 노처녀 시청자와의 전화인터뷰는 홀로사는 여자는 사회적인 문제거리인 것처럼 다루고 있으며 여자는 꼭 결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있을 뿐이었다.

12월 5일 가수 송준희를 초대해서 그의 불우이웃돕기와 장학사업을 소개했다. 그가 도와주고 있는 사람을 직접 출연시켰는데 그의 마지막한 태도와 불편해 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은 출연자의 인격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다.

다.

진행자인 양희경이 출연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출연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진행자의 역할인데 수다스럽기까지 한 양희경의 팬트는 누구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지 모를 지경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준비도 미흡하고 진행자의 자질도 부족하다.

SBS <이경실의 세상을 만나자> MC 이경실, 한종희, 유정현

퀴즈코너에서 힌트를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이 오히려 시청자를 우롱하는 느낌을 준다. 화요일 퀴즈에서 많고많은 주방세계 중에서 하필이면 수입 다단계판매용 주방세계를 보여준 것도 너무 생각없는 장면이거나 간접광고 혐의가 짙다. '한지붕 세가족'은 작위적인 냄새가 짙긴 하지만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내용 또한 건전

하고 진솔하다.

'스타요리쇼'에서 태진아는 자신의 매니저로서 입지를 부각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어서 듣기에 거북했다. 또한 조갑경의 털달린 의상도 요리코너에 적합치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요리코너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 시간 때우기라는 인상이 짙다. '통통미인' 코너도 날씬한 여자를 선호하는 풍조나 마찬가지로 여전히 여자를 신체치수로 회화화하고 있다.

12월 5일에 주택조합의 피해와 문제점을 짚어본 것은 유익했다. 피해 당사자가 출연하여 고충을 호소한 뒤 변호사가 소비자의 피해를 직접 취재하고 문제점을 지적, 방법을 제시하는 등 열의가 돋보였고 실제적인 도움도 주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는 주제별로 내용상 질적인 차이가 많다는 것이었다.

SBS <한선교의 좋은 아침> MC 한선교

12월 3일 수와진, 김광석목사를 초대해서 사랑을 보급하는 가수, 거리공연, 자선을 행하는 모습 등을 보여준 것은 연말을 맞아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값진 내용이었다.

12월 4일 '충격! 10대 임신 엄마가 몰랐다'는 제목만큼이나 토론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은 날이었다. 진정 초대되어야 할 성교육

자나 청소년 상담가는 초대되지 않고 10대의 임신은 개인과 가정의 책임으로만 몰아가고 있었다. 임신은 여자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마저 접어두고 임신 당사자와 엄마의 책임만 묻고 있는 것은 성차별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성교육의 부재, 성문란 풍조에 대한 사회진단은 전혀 하지않은 채 개인만을 탓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12월 6일 '형제의 강'에 출연한 아역배우 정수범을 초대해서 '벗는 연기도 해 보시겠습니까?'라는 진행자의 자질이 의심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사소한 실언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이런 것들이 모여 결국 이 사회의 도덕성을 마비시키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길 바란다.

벗는 말

아침 토크 쇼는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주부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주부들은 연예인의 신변잡거나 남의 생활 들여다 보기나 좋아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제작하고 있다. 가정을 벗어나 사회, 정치, 경제 등의 정보는 거의 없어 여성의 자리는 가정이고 그 밖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여성답지 못하다는 것을 은연 중에 심어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들에게 보수적 가치

관을 주입시키고 있다.

프로그램마다 형식이나 내용이 비슷하고 진행도 짜임새가 부족하다. 이것도 시청자는 염두에 두지 않고 적당히 시간을 때우면서 프로그램마다 붙는 광고에만 신경을 쓰는 태도이다.

각각의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자사 프로그램에 대한 자화자찬에다 억지로 시청자의 동의를 구하는 모양새도 보기에 답답하다. 주요 출연자들이 대부분 연에 인인 점도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려는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

모니터 보고서마다 들어가는 말이지만 타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과 전문화된정보를 줄 수 있는 유익한 토크 쇼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 남의 것을 도용하기 보다는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주부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진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정리 : 이영주(본회 매스컴 모니터)



대전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는 대전지역 여성단체 상호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여성의 통일된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1989년 3월 14일에 발족하였으며 현재 9개의 시단위 단체장과 직원 1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초대회장으로 대한어머니회 대전지부장인 장선에 회장이 추대되었고 제2대 조선형 회장, 제3대 강홍자 회장, 제4대 박숙현 회장, 제5대 송병희 회장, 제6대 장선에 회장을 거쳐 현재 제7대 김은숙 회장이 맡아 대전여성들

협동회원단체를 찾아서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대전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작게는 대전지역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크게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여성들의 단체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의 복지에 힘쓰고 있다.

대전여협의 '96년 활동들을 되짚어 보면, 지난 9월, 대전사랑운동으로 5개 구별로 대전사랑에 대한 교양강좌 실시, 대전지역 문화유적답사, 대전상품에 용운동을 전개하여 행사에 참가한 여성들에게 대전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애郷심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7월부터 12월까지를 남녀성차별 철폐운동 기간으로 정하여 7월에는 주부모니터 요원을 활용, 일상생활속에서의 성차별 용어와 교과서속의 성차별 용어를 조사하고,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성차별 사례수기를 공모(총 65건 접수)하여 지난 12월, 6호를 맞이한 '대전여협'지에 실었다.

그리고 지난 12월 5일에는 주부들의 잠재능력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96 문학의 해 기념사

업으로 "여성시 낭송회"를 개최하였는데 19명의 발표자들이 지정시로는 대전의 자연, 인물, 역사, 풍물, 향토성을 낭송해 대전사랑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자유시로는 각자의 애郷시나 자작시를 낭송해 문학사랑의 마음을 고취시키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대전여협의 연중 사업으로는, 여성단체간의 정보와 사업을 교류하여 조화로운 여성단체 발전과 여성지도자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단체지도자연수'를 매년 2회 실시해오고 있으며, 우리지역 여성의 힘을 결집하고 사회참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여성대회'가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작게는 대전지역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크게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여성들의 단체 확립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이웃사랑,

대전사랑, 나라사랑의 3대 사랑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근로여성고발장구 운영보고서

주부사원, 부당대우 받고 있다

기혼여성들의 인기직종으로 알려진 주부판매 직원들도 불안정한 지위와 판매 강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채용과정에서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임으로 가능한 문서로 남김으로써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접수현황

1996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회 근로여성고발장구에 접수된 고발건수는 41건(제상담 제외)으로 고발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체불 11건(26.8%), 부당대우 11건(26.8%), 직장내폭행 4건(9.9%), 부당해고 2건(4.9%), 직장내 성희롱 2건(4.9%), 모집·채용상의 차별 1건(2.4%) 그리고 기타가 10건(24.4%)이었다.

II. 유형별 접수사례

1. 부당대우

(사례 1) A그룹의 계열사에서 7년간 영양사로 일하고 있는 상담인은 11월 5일 결혼식을 한다. 그런데 총무과장이 10월 21일 상담인을 부르더니, 4일까지 업무를 정리하라고 권고사직을 통보하였다. 별정직 5급사원인 상담인은 이 회사에 구내식당을 포함, 전체 3명의 기혼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퇴직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일이 없다. 특히 결혼후 계속 근무할 것을 예상하고 모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요즘 크게 낙담하고 있다.('96. 10. 23)

(사례 2) 동사무소에서 전입전출 업무를 맡고 있는 상담인은 근무성적도 좋고 동료들과도 무난하게 생활하고 있다. (현재 8급) 지난 12월 24일, 상담인은 감기기운이 심해져 도저히 출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날 아침 전화로 휴가를 신청하고 26일 출근하였다. 그런데 계장이 상담인의 휴가를 문제삼아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전직원에게 무단결근 확인서를 받아 징계하겠다고 협박하던 협박을 하였다. 전화로 휴가를 통보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상담인은 너무나 당황스럽다.('96. 12. 27)

(사례 3) K공단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상담인은 현재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일한 날은 10시 이후에 꼭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연장근무를 해야 하지만 가사부담이 있는 상담인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연장근무를 할 필요는 없는데도 강요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상담인이 문제제기를 하면 사용자

나 동료 남자직원들은 '싫으면 그만 두라' 라고 대응할 것이 뻔해 더욱 답답하기만 하다.('96. 11. 5)

(사례 4) 상담인은 A백화점에서 S사의 Kim's 라는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판매량의 일부를 본사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7월 1일 1년 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계약 당시 상담인도 몰랐던 임신 사실이 후에 회사측에 알려지자 본사 담당자가 "매장 책임자가 임신을 하면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다"며 9월 30일까지 매장을 정리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상담인은 보증금외에도 수천만원의 시설비가 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더욱 속상한 것은 '임신한 여성은 사회생활할 수 없다'는 인식이며 그 때문에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경력이 무너지는 것이다.('96. 9. 16)

2. 임금체불

(사례 5) 상담인은 '영어스쿨'이라는 학원에서 강사로 2개월간 일을 하였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계속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사고 이후 1개월치의 월급에 대해서 원장이 안주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96. 8. 6)

(사례 6) 모출판사에서 9월 11일부터 텔레마케팅 업무를 시작한 상담인은 월 80만원의 월급을 약속받고 입사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이 입사 첫 달은 70만원만 준다고 하고 전화상담외에 다른 잡무도 하기를 강요하였다. 이에 근로조건에 실망한 상담인은 9월 25일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 한달을 채우지 못했는데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96. 10. 30)

(사례 7) X여행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상담인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퇴직 4개월후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회사를 방문했다가 날벼락같은 소리를 들었다. 상담인은 항공편 예약관계로 금전출납을 일부 담당했는데 장부상에 오차가 있다며 퇴직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상담인은 너무나 억울해서 본인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맞춰 주겠다고 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이를 거절하였다.('96. 12. 11)

(사례 8) I학습지에서 배달사원으로 1개월간 일한 상담인은 계약당시와 조건이 너무 달라 그만두겠다고 하자 '3개월 미만자는 월급을 지급치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회사측에서 월급을 주지않고 있다.('96. 12. 20)

3. 직장내폭행

(사례 9) 직원이 4명인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인은 지난 9월 2일 6시 40분경 과장과 업무상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과장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더니 옆에 있던 유리컵을 상담인을 향해 던져 머리에 맞았다. 이 사건을 사장과 부사장이 함께 지켜봤는데 상담인에게 하루 쉬라는 말만 할 뿐 과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96. 9. 6)

(사례 10) 상담인은 지난 10월 31일 밤 11시경 동료와의 회식자리에서 남자직원에게 구타를 당했다. 술에 취한 가해직원은 화장실에 가려고 나온 상담인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고 이에 항의하자 구두발로 청강이를 찬 후 따귀를 3~4대 때렸다. 상담인은 평소 그 직원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회식 자리에서 이런 일을 당할지는 몰랐다.('96. 11. 1)

(사례 11) 건설회사에서 3개월간 임시직으로 근무한 상담인은 대리인 남자직원이 자신의 한약을 데워서 컵에 따르라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켜서

이를 거절하였다. 그랬더니 그 남자직원이 서류를 던지고 상담인의 따귀를 다짜고짜로 때리는 것이었다. 상담인은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였으나 "네가 나가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96. 12. 2)

4. 직장내 성희롱

(사례 12) S제약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인은 40대 전문직여성이다. 상담인은 외부감사후 감사관과 부서장 등과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부서장에게 심한 모욕과 성희롱을 당했다. 회식자리에서 두 명의 여직원이 참석했는데 술에 취한 부서장이 "아무개는 나이가 많아 갱년기에 접어들었다", "할망구 늙은이"라는 말을 하고 식사하다가 이유없이 상담인을 끌어안으려고 해 뿌리치자, 벌컥 화를 내고 계속 욕설을 하였다.('96. 10. 22)

5. 기타

(사례 13) XX 상호신용금고에 근무중인 상담인은 60일의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의 월차휴가 사용여부가 궁금하여 문의해 왔다.('96. 10. 5)

(사례 14) Y미디어에 주부사원으로 입사한 상담인은 방문판매가 너무 힘들고 적성에 맞지 않아 일을 그만 두었다. 그런데 상담인이 친구에게 팔았던 상품을 그 친구가 반품을 하자 판매수당을 도로 내놓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처음에 입사할 때는 판매사원은 판매에만 신경쓰면 된다고 하였는데 이제 와서 일한 댓가로 받은 것을 돌려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96. 11. 30)

(사례 15) XX 금융의 여직원중 94%는 여사원의 유니폼 착용에 반대하고 있다. 여직원들은 유니폼이 여직원을 획일화시키고 남자직원들과 시각적으

로 분리시킴으로써 업무나 능력을 한정시키고 이러한 의식을 고객에게도 심어준다는 관점에서 유니폼 착용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 회사의 남자직원들은 유니폼 착용대신 양복을 입고 회사로부터 의류비로 상품권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근로기준법 5조 균등대우에 위반이 아닌지 문의해 왔다.('96. 10. 1)

III. 사례분석 및 처리결과

'96년도 하반기 근로여성고발창구 상담내용의 특징은 부당대우의 증가와 주부사원의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결혼식 통보 후 퇴직을 종용받고 있는 영양사와 부당징계의 위협에 있는 여성공무원, 임신후 계약을 해지당한 디자인사 등이 상담을 해온 것으로 보아 비교적 안정된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여성들도 부당대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혼여성들의 인기 직종으로 알려진 주부판매 사원들도 불안정한 지위와 판매 강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때문에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채용과정에서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임으로 가능한한 문서로 남김으로써 명백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주와 근로자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약정내용에는 임금과 직책,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근로계약기간, 수습기간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이밖의 근로조건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등을 참고하면 된다. 근로계약상에 있는 내용이라 하여도 법을 위반 사항은 원인 무효임으로(사례 8)의 상담인은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근로계약 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퇴직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사직서를 제출

하면 바로 계약이 해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수리하여 처리해야 함으로 사직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한 후 그만두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사례 2)의 경우처럼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사례 12)는 직장내 성희롱을 효과적으로 대처한 예이다. 상담인은 사건개요와 사과요구를 포함한 문서를 문제의 부서장에게 정식으로 전달하고 모월 모일까지 공개사과하지 않을 경우 대내외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부서장은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회식자리에 있던 모든 직원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은 해결되었다.

기타사례 내용으로 기업의 인당당자가 성희롱 예방조치에 대해 문의해 온 적이 있다. 직장내 성희롱은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성폭력특별법에 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예방을 하려고 해도 모델이 없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직장내 폭력 및 성희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감독 및 예방에 노력하여 이러한 폭력 때문에 일터를 떠나는 여성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지난 '94년 말 금호그룹은 회사내 여직원에 대한 성적 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그룹내에 '성희롱고발상담창구'를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었다. 일단 상담창구에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인사부서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의 의견을 들은 뒤 중재하고 필요할 때는 공개사과나 각서 등을 통한 1차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판결하고 전보 또는 해고 등의 인사조치를 한 후 그룹내 전자통신망인 텔레피아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성희롱으로 인한 여직원의 사기저하 등의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조치인 것 같다.

(사례 3)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야업금지)에 의해 여자근로자를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근로시킬 수 없다.(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을 경우 예외) 따라서 해당 여성근로자가 야업근로의 동의를 철회하면 하오 10시 이후 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전체 근로자들이 무리없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것임으로 다른 남성근로자들과 함께 필요없는 야업을 피하고 근무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근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롭기 때문이다.

(사례 13)의 산·전후 휴가 사용시 월차휴가 유무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 조항이 없다. 그러나 월차휴가는 1개월 만근에 대한 보상휴가이므로 산·전후 휴가 사용자는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48조에 의해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초점**

여성문제 주무부서인 정무장관(제2실)은 21세기 여성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과 남녀평등을 위한 법제 및 관행의 선진화를 비롯한 10대 역점시책(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 1년을 맞아 정부의 포괄적인 여성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무장관(제2실) 10대 역점시책

1. 제1차 여성발전기본계획 수립

여성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여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1차 여성발전기본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한다(1차년도:1998~2002년).

계획수립기간중 민·관합동으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지역별·직능단체별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2. 여성정보종합유통시스템의 구축

정보화사회에 부응하여 여성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망과 여성관련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 관련기관과 단체를 연계하고 여성정보의 통합관리와 공유·공용체제를 확립한다.

3. 여성발전기금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

여성발전기금이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여 여성의 능력개발사업, 여성국제교류협력사업 및 여성자원봉사활동 등 여성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한다.

4. 차별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분야별 성차별개선 지침 마련

OECD가 제시한 고용, 복지, 교육분야 등의 여성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 OECD회원국 수준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가정·사회활동·고용·교육 등 각 분야의 성차별 개선 목표를 지표화한 분야별 성차별 개선 지침을 마련하고, 동 지침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50대 기업에 대한 고용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고용 우수기업들을 선정, 포상한다.

또한 대중매체의 성차별지표('96년 개발)를 토대로 대중매체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포상한다.

5.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성윤리교육 강화

올바른 성윤리 함양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성윤리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각급 학교교사의 성윤리 특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에 정규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연수프로그램에 성윤리 교육을 강화하며,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지침서를 개발, 보급한다.

6. 공공부문의 여성고용 및 참여 확대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96년 도입)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목표율: '97년도 13%, 2000년도 20%)

또한 공기업체의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한다.

각 부처별로 소속 위원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여성위원 참여목표율('97년 12%)을 수립·관리하도록 독려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까지 확대한다.

7.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 생활문화운동」 지원

구체적인 실천과제(예:과소비 억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를 선정하여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공동의 장을 활용하여 주부를 위한 '가계소비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한다.

8. 여성사회교육기관 설립 추진

중전의 남녀차별해소 중심의 교육을 한차원 높여 21세기에 부응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역할 및 능력 제고를 위하여 「한국여성사회교육원」(가칭)을 설립한다.

본 교육원은 여성사회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적인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 운영하고 전국의 여성사회교육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한다.

9. 모성존중과 도덕성회복을 위한 「인성교사제」 운영 등 여성사회교육의 내실화

'97년에는 새롭게 모성존중 및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각 분야의 덕망있는 원로인사로 '인성교사'를 위촉하여 지역별 여성회관 등 평생교육기관과 연계시키는 「인성교사 풀(Pool)제도」를 운영한다.

사회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특히 여성지도자교육과 경제교육, 인터넷 등의 전산교육에 중점을 둔다.

10. 아·태지역 교류협력정보센터 설립

아·태지역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여성개발원내 여성정보센터를 활용한 아·태지역교류협력정보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인터넷에 한국의 여성정책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ESCA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으로 저개발국 여성발전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

김양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본부 수석연구위원)

1995년 현재 대중매체 조직에 근무하는 여성종사자는 전체의 15.4%인데, 신문사의 경우 16.5%, 방송사는 14.3%, 통신사는 11.6%에 불과하다. 대중매체관련 정부차원의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 역시 극히 낮은 편이다. 이렇듯 대중매체 프로그램의 제작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낮은 것은 프로그램에서의 여성차별 문제로 귀결된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 중 하나로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가 선정된 것은 그동안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운동단체에서 대중매체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며, 앞으로의 여성정책이 보다 보편적이며 근본적인 접근을 채택할 것을 암시한다. 10대 과제에 포함된 구체적 정책 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과제 10: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

- 대중매체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
 - 각종 언론, 방송관련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2005년까지 30%로 확대
- 대중매체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성차별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여성문제에 대한 공익광고 제작·보급 확대

이 글에서는 동 정책과제의 도입 배경과 추진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1. 도입배경

그동안 공식·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급속히 증대하였음에도 사회 전반에 전근대적이며 여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이 편재해 있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이 여성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며 정부가 추구하는 세계화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의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대중매체는 사회의 가치관 형성 및 의제설정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체 프로그램이 여성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대변하고, 남성과 여성을 탈고정관념으로 또 균형적으로 묘사한

다면 사회의 여성차별적 의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대부분의 매체 프로그램에서 여성이 과소대표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여성의 요구에 민감하지 못하고 여성을 균형되게 묘사하지 않고 있다. 장르를 막론하고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인물의 역할과 언어, 행동에서 여성비하와 차별, 여성의 상품화와 성적 대상화가 심각하다.

신문의 경우 여성의 관심사를 가정, 건강, 신변잡기 등에 한정시키는 경향이 크며, 기획, 특집, 제언기사 등에서는 여성문제를 소홀히 한다. 방송보도물에서도 여성이 등장하는 비율이 원천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여성은 사건사고의 피해자로 부각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뉴스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듯 하다. 물론 여성의 사회활동이 남성에 비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회발전에서의 여성의 기여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여성들의 행사도 주

목을 받지 못한다. 뉴스의 진행에 여성 참여가 늘기는 했지만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을 맡거나, 전문성보다 젊음과 미모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등 균형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진행의 문제는 각종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드라마에서도 역시 등장인물의 역할이 전통적인 성고정관념을 강하게 담고있으며, 드라마에서 연출되는 생활장면에서의 인간관계와 언어, 행동묘사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높다. 최근 몇년 사이에 여성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늘었으나 말초적인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많고 여성의 관심사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며 다양해진 여성의 역할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다.

한편 현행 심의기준들은 도덕성이나 윤리의성 차원에서 매체 프로그램의 성표현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남녀차별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은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미디어기술의 발달로 국경없는 전파의 흐름과 정보의 교류가 가속화될 것이며,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다국적 자본가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인 바, 프로그램의 상업성과 선정성이 더욱 우려된다. 이에 국가적, 더 나아가서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조직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

의 참여가 부진한 것도 매체 프로그램의 문제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1995년 현재 대중매체 조직에 근무하는 여성종사자는 전체의 15.4%인데, 신문사의 경우 16.5%, 방송사는 14.3%, 통신사는 11.6%에 불과하다. 대중매체관련 정부차원의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 역시 극히 낮은 편이다. 이렇듯 대중매체 프로그램의 제작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낮은 것은 프로그램에서의 여성차별 문제로 귀결된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미디어의 영향력은 날로 증가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미디어가 이전의 유엔 여성회의에 비해 비중있는 의제로 다루어지도록 하였다. 북경회의 행동강령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미디어의 기능을 강조하고, 미디어와 의사결정에 대한 여성의 접근권, 그리고 미디어의 균형적이며 비고정관념적인 여성상 증진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2. 정책추진현황

1) 공보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심의위를 담당하는 기구로는 방송위원회 안에 방송심의위원회가 있다.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에 근거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정규적으로 모니터하고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정 및 제

제조치를 명하고 있다. 기존의 [방송에 관한 심의규정] 총칙은 심의의 범위에 방송의 공적책임(제3조 1항)과 공정성 및 공공성(제3조 2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2장 기본원칙 제5조에서는 공정성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4항은 "방송은 제충간, 지역간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제12조(인권의 존중)에서는 "방송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성별, 직업, ...등 모든 면에서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와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외 제15조(어린이 및 청소년 선도), 제16조(가정생활의 존중), 제17조(사회윤리의 신장 및 국민정서의 존중) 등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 그런데 방송심의 결과는 사회윤리와 도덕성차원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 그리고 지나치게 비속한 언어사용 등은 제재하는 반면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을 제대로 심의, 제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정무장관(제2)실

최근 들어 정무장관(제2)실에서는 여성과 대중매체의 문제를 여성정책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예로, 1995년에는 텔레비전의 성차별적 내용을 시범모니터하였으며, 여성정책심의위원회안에 대중매체의 성차별

적 편견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 제시하였고,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편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996년에는 대중매체의 여성차별지표를 개발하여 '대중매체의 성차별지표 활용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1997년에는 텔레비전의 여성차별지표를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장관(제2)실이 추진하여 1995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각 부처의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2005년까지 30%로 올리기로 의결하였는데, 대중매체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확대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3. 앞으로의 과제

1) 공영대중매체망의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시행

대중매체망의 여성인력이 최소한의 임계치량이라도 되어야 프로그램의 편성과 내용에 관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이미 80년대부터 방송의 성형평등을 담보하기 위해 여성채용할당제를 실시하였으며 방송사 면허 인허가시에 평등고용관행을 고려하였다.

2) 대중매체관련 의사결정직에 여성참여 확대

각종 언론, 방송관련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조속히 확대하기 위해

신임위원 선정시,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통합시 여성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3) 방송위원회에 여성특별분과 설치

현재 방송위원회 안에 아동에 대한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것과 같이 여성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의 성차별 문제를 전문적, 지속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지역민 방협체제에 여성관련기구를 설치하여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한다.

4) 심의규정 마련

심의규정에 성차별관련 규정을 포함시키고 실제 심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방의 경우 허가생신에 성차별위반점수를 고려한다. 이를 위해 [방송에 관한 심의규정] 제5조(공정성의 원칙) 제4항 "계층간, 지역간 갈등..."에 "성간"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 그리고 제15조의 어린이 및 청소년 선도관련 규정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성차별의식의 개선 또는 성평등의식의 고취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영국의 IBA (Independent Broadcasting Authority-영국의 15개 독립방송국의 인허가를 관장하는 기구)는 방송사들에게 방영권을 부여할 때나 허가를 갱신할 때 방송사의 성평등 정책을 보고토록 하여 허가기준자료로 삼고 있다.

5) 대안적 미디어 제작 지원

여성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의 제작, 보급을 확대하며, 여성발전기금에서 여성의 대안적 미디어 제작훈련 및 실제 작품제작을 지원한다.

6) 미디어종사자에게 성인지교육 실시

신규직원교육 및 계속교육과정에 성평등의식과 여성문제의식을 제고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7) 대중매체조직의 성차별개선 위한 지침서 도입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사들은 자체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기준을 두고 있는데 대부분이 미풍양속과 사회윤리 차원일 뿐 성간 공정성이나 평등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외국의 경우에도 대중매체 특히, 공중파를 이용하는 방송사들은 매체 프로그램의 여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작지침을 두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캠페인이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종사자들의 제작관행을 성평등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국내의 조직들도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사회의 여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남녀관계를 구축하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 해외여성통신

진보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남녀평등

미국의 일터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비록 느리기는 하지만 확실히 남성들과의 평등을 목표로 진보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은주 (연합통신 외신국 기자)



美여성, 직장에서의 남녀평등 확대

미국 여성들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직장에서의 남녀평등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인구조사회가 1월 2일 발표한 "미국에서의 여성, 직장, 가족"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연구를 담당한 수잔 비엔치와 다프네 스페인은 "일터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비록 느리기는 하지만 확실히 남성들과의 평등을 목표로 진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결과 25세에서 54세까지의 여성들 중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들의 비율은 지난 70년에 50%에서 95년에는 76%로 늘어났으

며 특히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들의 취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기 때문으로, 백인 대학졸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77년 46%에서 93년에는 54%로 늘어났고 흑인 대학졸업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57%에서 63%로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에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여성의 비율은 백인들의 경우는 25%에서 44%로, 흑인들의 경우는 39%에서 55%로 늘어났다.

비엔치와 스페인은 "오랜 기간 동안 소수민족 출신의 가난한 노

동계층 여성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기대해왔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여성들은 시급한 경제적 필요가 아닌 다른 이유로 직업을 갖고 돈을 벌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남녀간 임금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70년에는 여성들의 수입이 남성들의 59%에 불과했으나 94년에는 79%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 부정적 측면도 드러났는데, 여성들의 임금이 높아진 것은 여성들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남성들의 임금이 비교적 오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도 분석됐다.

또한 직장에서 여성들의 노동시간이 늘어났으나 여전히 가사 및 육아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떠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들의 주당 가사노동시간이 65년 30시간에서 85년 20시간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남자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독일에 매맞는 여성들을 위한 보호소 3백 76 개

베를린에 매맞는 여성들을 위한 보호소가 처음 설립된 이후 지난 20년간 독일 전역에서 매맞는 여성들을 위한 보호소가 3백 76개로 늘어나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남편들이 부부싸움중 아내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질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요즘은 쇠망둥이에서 전기스텐드나 재떨이에 이르기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들어 아내를 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칼이나 총으로 아내를 위협하는 무지막지한 폭력남편들도 있다.

지난 70년대 가정폭력이 독일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을 때 한창 성장세를 타던 여권운동 단체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결과 가족문제부의 재정지원으로 매맞는 여성들을 위한 보호소가 최초로 베를린에 들어섰다. 그후 20년간 1만명의 여성이 8천명의 자녀를 데리고 이 베를린 보호소의 문을 두드렸다. 이중 50%는 외국인이다. 보호소

들은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주소는 비밀에 붙여지고 있다. 그러나 보호소에 피신한 여성들 중 3분의 2는 결국 남편에게 돌아가는데 이는 주로 아이들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이 밝혔다.

현재 베를린시는 관내 6개 보호소에 연간 1천 1백만 마르크(7백 3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베를린시가 재정지원을 중단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베를린시는 보호소 지원과 함께 최근에는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한 "개입 조치"를 실험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가정폭력 피해를 다루는 특별부서도 설치했다.

가정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법원, 검찰, 경찰, 사회단체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유명 분유업체, 모유 권장 국제 규정 위반

네슬레, 거버 등 세계 유명 분유업체들이 모유 수유를 권장토록하는 국제 규정을 위반, 유아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선단체, 교회, 기타 사회단체 등 27개 기관으로 구성된 모유수유감시그룹(IGBM)이 실시, 1월 8일 발표한 합동 조사에 따르면 분유제조업체들은 개발도상국에서 판촉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지난 81년 세계보건회의(WHA)에서 채택된 '모유 대체물 판매에 대한 국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여성들이 수유 방법을 결정할 때 모유가 의학적으로 최상의 것임을 알도록 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유는 유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유아의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유제조업체들은 분유 판촉을 위해 이 사실을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IGBM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이같은 사실을 감추고 분유 수유를 조장하는 행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IGBM의 연구는 방글라데시,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에서 임산부 및 6개월 이하 유아에 있는 여성 8백명 및 보건요원 1백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네슬레, 거버, 미드 존슨, 누트리시아, 위에트 등의 업체가 해당됐다.

4개국 여성들은 모유 수유가 유아의 영양공급에 최상의 형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채 이들 업체로부터 인공 수유를 조장하는 정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직원들은 모유의 우수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보건 요원들이나 유아가 있는 여성들을 방문, 선물이나 샘플, 판촉을 위한 정보를 배부해 왔다.

한편 세계유아식제조업자협회는 IGBM의 이같은 연구 결과를 "계획 및 실행에 있어서 편파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프랑스, 여성정치평등 위한 개헌 논의 추진

알랭 쥐페 프랑스 총리는 1월

15일 프랑스 정계에서 여성들의 위상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개헌 가능성을 밝혔다. 쥐페 총리는 정계에서 여성 진출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오늘의 상황은 더이상 묵과될 수 없다"고 개탄하고 여성의 정치적 지위 향상 문제를 의회 토론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마리 쿠데르 노동장관은 이 문제가 세계여성의 날인 오는 3월 8일을 전후해 의회에서 심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회는 최근 여성의 정치적 지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평등권 전망대'가 내놓은 제안들도 심의할 예정인데 이들 제안에는 선거제도를 고쳐 매 선거구당 남성 1명과 여성 1명 등 2명의 후보를 뽑도록 하자는 안도 포함돼 있다. '평등권 전망대'는 또 헌법에 남녀의 정치적 평등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쥐페 총리는 '평등권 전망대'를 대표하고 있는 여권운동 지도자 지젤 알리미와 보수당의 로젤린 바슐로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에 불리한 현행 정치제도를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알리미씨는 프랑스를 "유럽의 흥동"이라 부르면서 프랑스 여성들이 여러 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전체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1%이나 5백 77석의 하원 의석 중 여성은 고작 5.5%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상원에서도 여성의석 비율은 5.6%에 불과하며 지방정부의 경우도 여성시장은 7.6%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기업 대부분 성희롱 방지 조치 없어

일본 기업의 90% 이상이 성희롱에 대비한 어떠한 예방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총무청 조사결과 밝혀졌다.

총무청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2백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92.5%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 중 74.7%는 이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어떠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 지난 95 회계년도 동안 12개 현에서 여성근로자들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제소한 건수는 2년전의 1백 4건의 두배 가량인 2백 3건에 달했다. 조사대상 기업 중 74개 업체가 지난해 3월 기술이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채용했는데 이중 33.8%가 남자 졸업생들만을 뽑았으며 직업학교와 2년제 전문대학 졸업생들을 채용한 75개 업체 중 26.7%도 남자 졸업생들만 채용했다.

이들 업체의 절반 가량은 여자들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여성들의 야근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총무청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노동청에 법적 조치 및 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성희롱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여성들

에 대한 야근 제한 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경시의회, 여성의원수 증가

1월에 개최되는 이번 북경시인민대표대회(PC)에 참가하는 여성대표수가 4천 3백 66명으로 늘어났다고 16일 차이나 데일리가 북경시부녀연합의 통계를 인용, 보도했다.

이는 북경시 13개 지역에서 선출된 3년 임기의 전체 대표 중 31.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난해로 임기가 끝난 대표들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6.1%였던 것에 비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3개 지역 중 12개 지역에서 여성 대표의 수가 늘어났는데 특히 해전구의 경우는 여성대표가 19.2%를 차지하던데서 이번에는 35.2%로 늘어났다.

부녀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기초단체 수준에서 여성들이 선출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여성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고 여성들이 신임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들이 기초단체 수준에서 정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여성을 비하하는 차별언어 폐해 심각

말이 지닌 힘을 매우 크다.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있지만 여성들에게 성차별적인 언어가 지속적으로 쏟아진다면 그 부정적인 여파는 셀 수 없을 만치 클 것이다.

"이전 여자가 할 일이야" "여자가 조심해야지" "여자가 뭐하러 싸돌아다니냐"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는 말들이 일상언어로 자리 잡고 있다. 여성을 공적인 존재로 인정치 않으려는 '노력'이 담긴 말들도 무수히 떠다니고 있다. 직장 에서 여직원을 부르는 호칭만 해도 그렇다. '미스'가 불거나 '언니'로 통용되는 직장이 아직도 많다. 심한 경우 '아가씨' '아줌마'로 불리곤 한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에는 여성을 비하하거나 역할을 제한하는 등의 성차별적인 언어 들이 조목조목 담겨있다.

여성개발원의 보고서에서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 현들로 다음의 것을 예시하고 있다.

▲ 여성의 열등성을 강조하는 표현 = '전화나 잘 받아줘야지' '집에서 뭐했느냐' '여지껏 그런 것도 몰라' '니가 돈벌어본 적 있어?' '아, 여자한테 그 런 일을 맡기니까 맨날 찢찢 찢고 그러지'

▲ 여성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 = '여자가 재수 없게 운전하고 있어' '아줌마 죽고 싶어 환장했어?' '아침부터 여자가 전화하고 야단이야, 재수없게시 리' '아침부터 여자가 잔소리한다' '갑히 여자가 어 디서...' '똑똑한 여자는 싫어' '설치대는 여자는 싫 어'

▲ 시어머니에 의한 여성비하 표현 = '네가 들어 온 사람이니까 참아라' '네가 빌어야 집안이 평안 하다' '집안의 평화를 위하여 만여느리가 참아라'

▲ 여성의 외모에 관한 표현 = '견적이 많이 나 오겠다' '성형수술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다' '귀 를 잡아먹었나' '똥덩어 그만 좀 먹어' '남 클때 뭐

했어' 등

이같은 언어표현으로 여성들은 불쾌감과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얼마후엔 체념상태로 자신의 감정을 감춘 채 적응을 하는 심각한 상태로 변진다는 것이다.

여성개발원은 여성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성차별 적인 언어를 여성들이 문제삼기 시작하는 것이 급하다고 보고서 말미에 적고있다.

그 한 대안으로 여성들의 소모임에서 성차별적인 언어를 주제로한 토론을 하자는 얘기가.

여성들이 성차별적인 언어사용을 뚜렷히 인식하고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실 마리가 되리라는 것이다. 언어사용문제를 언어로 풀자는 뜻이다.

예를 들면 '직장여성의 성차별적 언어 워크샵'에서는 회의에 여직원들이 참석할 경우 발언기회가 주어지는지, 여직원의 말이 주목을 받는지를 이야 기하는 것을 서두로 업무중이나 회의 시간, 회식, 야유회 등에서 성차별적인 언어표현이 있었는지를 나누도록 한다.

여성을 비하하는 속담이나 일상생활의 언어에 녹 아있는 성차별적인 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떤지를 나눈다.

토론이 끝난 뒤에는 직장에서 성차별적 언어를 들을 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불쾌함을 느끼는 데 그치는 대신 공론화를 하고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 좋다.

여성단체연합 97년 활동계획

한국여성단체연합은 97년 활동목표를 여성의 정치·경제적 주류화로 삼고 정치결정과정의 여성 참여를 늘리고 국민연금제중 여성차별조항을 개선 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여연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정당의

각종 직급에 여성을 30%까지 늘릴 것과 각종 선거 의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한편 배분에서 50%를 여성에 할당하는 등의 목표를 정했다. 고위임명직 공무원의 30%, 정부의 공공부문의 각종 위원회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포함된다. 남녀평등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대통령을 뽑 기 위한 전국 캠페인을 10월중에 열 계획도 있다.

여성의 경제 주류화를 위해서는 여성노동력의 비 정규직화를 방지하고 농업경영자를 선정할 때 여성 농민을 30% 할당하도록 할 것 등을 목표로 삼고있 다.

여성복지분야에선 국민연금제중 여성차별조항을 개선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2월 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여성 연금권리 보장 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한것도 이 때문이다.

이 밖에 여성노동관련법의 개정문제중 생리휴가 무급화를 반대하고 산전후 유급휴가를 늘리도록 촉 구하는 등의 활동도 펼칠 계획이라고 여연은 밝혔다. 한편 여연은 올해 10주년을 맞아 여성운동 10 년사를 펴내고 3월 9일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13 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여성노래를 발표하는 등 10주 년 기념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3월 7일에는 10주년 기념 기념마련을 위해 21세기 여성을 위한 음악회 '봄(Spring)·봄(See)'을 개최하기로 했다.

여의사 문제점 등 워크샵

임신한 여의사들에게는 공식적인 출산휴가 대신 3~4주의 비공식적인 분만휴가가 있을 뿐이다. 또 대학병원서 전공의를 뽑을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의사를 아예 뽑지않거나 여의사 정원을 할당하는 과목이 많다.

이처럼 여의사들이 겪는 성차별문제를 공식 거론 하는 워크샵이 열린다.

통상 전문인그룹으로 분류돼 남녀차별문제가 결

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의사세계에서 여의사들이 자 신의 문제를 들로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여서 눈 길을 끈다.

2월 16일 가톨릭의대부속 강남성모병원 2층 회 의실에서 열린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여의사를 위 한 사회기술훈련 워크샵'에서는 의사사회의 성차 별문제와 대안이 토론주제로 등장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여의사의 현황을 발표한 최보문 가톨릭의대 정신과 부교수는 "여의사들이 소위 인 기과목에서 기피되는 현상은 여성 개인의 능력 때 문이라기보다 현재 우리나라 수련의 훈련과정이 남 성중심으로 이뤄져있기 때문이다"라고 풀이했다.

의과대학 학생중 여학생 비율이 20%를 웃도는 데도 서울대 의대 교수중 여교수비율이 2.5%에 그 치는 등 의대여교수비율이나 특정과목의 여의사 비 율은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전문의 과목중 여의사는 소아과(47.5%), 산부인 과(33.7%), 임상병리과(62.8%), 해부병리과 (56%), 재활의학과(44.4%), 가정의학과(56.5%) 등 산부인과를 제외하고는 비인기과목에 편중돼 있 다.

최교수는 이밖에 인기과목중 일부과에서는 여의 사를 받지않거나 할당제로 묶어두는 예가 많다고 지적했다.

여의사가 소외되는 이유로는 의사사회가 계급적 인 체제로 이뤄져 군대경험, 술자리문화에서 형성 되는 보이스카우트 문화탓이라고 최교수는 풀이한 다.

이와함께 여의사들이 출산할 경우, 공식적인 모 성보호장치가 없고 3~4주의 비공식적인 분만휴가 가 주어지는 것도 여의사들이 풀어야할 문제로 최 교수는 지적한다.

이날 워크샵은 의대 졸업 여학생, 수련중인 여의 사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이미지관리, 대인관계 등 기술적 훈련도 포함했다.

장영신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장 취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각종 혜택을 여성경제인들이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경제인들이 기업인 대상의 교육을 심분 활용하도록 가교역할도 하고 해외의 여성경제인들과 교류할 기회도 자주 마련하고 싶어요”

지난 1월 17일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제20차 정기총회에서 9대 신임회장에 취임한 장영신 애경그룹회장(62)은 이날 총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성경제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체를 위한 융자 혜택 등을 여성경제인들이 제대로 이용하는지 모르겠네요. 실태를 조사해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여성경제인으로 활동하기에 어려움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경영에 남녀가 따로 없지만 나 자신도 남성위주의 모임에 참석할 때는 소수집단으로서의 콤플렉스를 느끼곤 한다”고 털어놓았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못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여성경제인들도 경제의 전문가로서 개척자정신을 갖고 곳곳이 일해간다면 여성후배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고통을 딛고 성공한 여성경제인들의 경험담을 듣는 것도 큰 공부가 될 것이라며 임기중 회원들이 시행착오와 성공사례 등을 서로 나누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구경 (경향신문 기자)

매스컴 모니터 교육 안내

본회는 올바르고 건전한 여성상 구현을 위해 매스컴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매스컴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이 사업에 새로이 동참할 신규 모니터를 다음과 같이 모집, 교육하오니 관심있는 분의 많은 참가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모니터 자격: 여성문제 및 언론문제에 관심이 많은 대졸이상의 여성
- 2) 교육일정: 1997. 2. 27-28. 10:00-16:00
- 3) 참가비: 없음
- 4) 참가신청: 794-4560
- 5) 기 타: 교육이수 후 원하는 분은 본회 매스컴 모니터로 활동하게 됨. 본회 모니터는 무보수 자원봉사활동임.

드라마 작가와의 대화

본회 매스컴 모니터회는 지난 12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드라마 작가 최연지씨를 초청하여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최연지씨는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MBC 미니시리즈 '에인'의 작가이다.

최연지씨는 “우리 시청자들이

러함보다 내면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그는 현실과 동떨어진 가족구조나 여성들의 회생을 바탕으로 출세하는 가족을 바람직한 가정으로 그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작품활동



드라마를 좋아하기에 작가로서 행복감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하면서 서민들의 오락으로 자리잡은 드라마가 작품성 뿐만 아니라 재미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시청자 운동의 성장으로 요즘 드라마가 외적인 화

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드라마 속에서 다루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첫째, 안전에 대한 교육을 드라마에서 자연스럽게 해줄 것 둘째, 어린이, 청소년 드라마 전담작가제를 도입하고 셋째, 지나치게 화려하고 과소비적인 배경과 소품을 지양하며 넷째, 여성

에 대한 남성들의 편견을 불식시킬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번 모임은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본회의 의사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기존의 활동에 더하여 드라마의 질적 향상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 기대된다.

경기도 비평준화지역 고입선발고사 남녀차별 합격선 폐지건의

본회는 경기도의 비평준화 지역의 일부 남녀공학교등학교가 고입선발고사에서 남녀차별 합격선을 적용함에 따라 차별합격선의 철폐와 피해여학생을 구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 및 경기도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발송하였다.

경기도내 비평준화 지역의 97년도 고입선발고사에서 49개의 남녀공학 중 19개교가 남녀학생의 합격선을 달리 적용하였다. 과천고의 경우 남학생 1백 65점(7학급), 여학생 1백 70점(5학급)의 차별 합격선을 적용하고 합격자를 발표하여 42명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불합격 처리되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비평준화 지역의 신입생 선발권은 해당학교장에 있으며, 이들 학교는 학칙에 의해 남녀의 정원

협 · 의 · 회 · 소 · 식

을 정하고 있고, 해당 학군내에 인문고등학교 정원이 충분한데도 여학생들이 무리하게 특정 학교에 지원해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회신하였다.

본회는 즉각 반박공문을 발송하여 경기도 교육청이 비평준화 지역의 신입생 선발권이 해당 학교장에게 있다는 핑계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그 책임을 해당학교장에게 돌리려는 태도를 지적하였다. 또한 내년부터는 고입선발고사가 폐지되고 중학교 내신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있는 바 예상되는 남녀차별적인 선발행태를 막기 위해 교육부, 청와대 그리고 언론사에 공정한 교육행정과 언론의 감시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최근의 파업 사태를 보는 우리의 입장 발표

본회는 지난 1월 15일,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의 대립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우려하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속한 대화를 쌍방 모두에게 촉구하는 의견을 36개 회원단체와 함께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본회는 "우리 주부들이 실지 채감하는 가계부 경

기가 하루가 다르게 위축되는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앞친데 덮친 격으로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계속된다면 우리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임"을 지적하고,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과 노동계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타협하는 민주적인 정치역량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였다.

'96 경제교육 및 건전소비관련 사업 사후평가회의

본회는 지난 12월 19일 2층 회의실에서 '96 경제교육 및 건전소비관련 사업 사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시·도여협 실무자 및 회원단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회의에서는 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6 사업 집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지침 등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97 사업계획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박영혜 부회장 세계화추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본회 박영혜 부회장은 지난 1월 9일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본회사무국 조직개편

본회는 업무 원활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서명 및 직책명을 개칭하고 보직 담당자를 교체하였다.

○사무총장:김금래

○여성정책부/부장:권수현

○여성정책부/간사:김신정

○사회개발실/실장:오혜란
사회개발실/소비자부장:이영지
사회개발실/간사:김문을

○조직·국제부/부장:김용화

○출판·홍보부/간사:오순옥

○회계부/부장:양복숙

○업무부/간사:이화영

직원채용

본회는 안전사업 확대 등으로 김문을씨를 사회개발실 간사로 채용하였다. 김문을 간사는 금년에 숙명여대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한다.

우 리 들 의

광 장

여성문제연구회

위탁운영 남성어린이집, 삼화노인정과 재매결연



여성문제연구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구립 남성어린이집은 지난 12월 6일 11시에 인근에 위치한 삼화노인정과 자매결연을 맺고 어린이들의 재롱잔치와 노인들을 위한 위로행사를 개최하였다.

자매결연을 통해 어린이들에게는 핵가족화로 인해 상실되어가는 어른에 대한 공경심과 효도의식을 고취시키고 노인들에게는 어린이들에게 고전 읽어주기,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등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가족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속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상호교류를 갖게 될 것이다.

사무실 이전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여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고 목적사업을 더욱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문제연구회는 재단법인 보덕학회 부설 보덕문화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지난 1월 5일 이전한 여성문제연구회의 새주소는 성북구 정릉 2동 508번지 167호이며 전화번호는 914-0368, 팩스번호는 914-0369로 변경되었다.

국제여성승공연합

정보화 시대로 본 남북통일 세미나 및 송년회



국제여성승공연합 문수자 회장은 연말을 보내면서 "정보화 시대로 본 남북통일"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송년회와 겸하여 개최하였다.

세미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 시대를 고려할 때 북한의 정보화 동향에 관하여 우리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리라 본다. 독일은 통일전에 과학기술면에서 동서간에 많은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통신분야 기술의 격차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에 대한 사전준비

우 리 들 의

광 장

가 부족했던 것을 후회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독일의 경험을 거울 삼아 남북한 정보기술분야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기술 격차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기종에 관하여서는 자세한 것은 알수 없으나 COCOM의 규제를 받아 대형 컴퓨터의 도입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다만 조선 컴퓨터센터 등의 연구소와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는 최신 워크스테이션을 장착한 기종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본다.

서울시 각구 회장단과 각도 임원단이 참석하여 열린 이번 세미나 및 송년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선물 주고 받으며 한 해를 마감하는 자리였다.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젊은 직장여성포럼, 『앞서가는 여성, 자신에 찬 미래』 성황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은 지난 12월 11일, 12

일 양일간 19-22시까지 연맹주최, YCW 주관으로 젊은직장여성포럼(주제:앞서가는 여성, 자신에 찬 미래)을 열었다. 전문직시대의 젊은 직장여성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프로정신을 키우고, 자신감을 북돋우며 서로간의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된 포럼에는 YCW회원을 비롯하여 출판, 교육, 의료, 광고,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젊은 여성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연인원 120명).

포럼은 11일 ▲광속시대의 프로만들기(주혜경 삼성데이터시스템 이사), ▲젊은 직장여성의 자기연출(정덕희 현대여성교육원 원장)에 이어 12일 ▲변신의 기회-새전문직의 창출과 창업(황은미 EM 컨설팅 대표, 김경옥 코벤인터내셔널 대표), ▲직장여성, 권리위에 잡자지 않는다(윤자야 현대공인 노무사사무소 노무사), 경력개발(김부홍 BH Communications) 등의 강의와 35세이하의 젊은 직장인으로 구성된 YCW클럽 소개와 참석자들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포럼에서는 여성의 전문직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정보능력, 프로정신과 직장 내에서의 원만한 대인관계가 필수적이며, 자기연출은 외형뿐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이미지 관리가 강조됐다. 또한 새전문직의 창출이든 창업이든 전문직여성으로의 자기발전의 기본요소는 장기적인 Career Plan 수립과 그 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며, 직장인으로서 자기권리를 지키고 아울러 직장에 부담해야 할 의무까지를 다하는 것이 준비하고 발전하는 직장여성의 당연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이 직장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또래 젊은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만족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고 YCW에 참여의사를 밝혔다. 젊은 직장여성이 사회적 연계를 가질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맞추어 연맹과 지방클럽이 모두 직장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우 리 들 의

광 장

한국퇴역여군회

'96 원로 초청 여군회 개최



한국퇴역여군회는 지난 '96년 12월 19일 육군회관 무궁화홀에서 정영숙 회장과 임원들이 '96 원로 초청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원로 및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한해를 정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오찬을 함께 하면서 선후배간에 허심탄회한 정담을 나누면서 빙고게임과 노래자랑으로 상품을 교환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으며 '97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욱 단결하여 발전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국자수문화협의회

사무실 이전

한국자수문화협의회는 지난 1월 13일 강남구 청담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변경된 주소는 강

남구 청담동 경원하이츠텔 705호이며 전화번호는 3445-5356 이다.

한국여류시각디자인협회

사무실 이전

한국여류시각디자인협회는 마포에 새로운 사무실을 갖게 되었다. 주소는 마포구 동교동 154-8 용호빌딩 1층이며 전화번호는 335-7580, 팩스번호는 종전대로 979-2264 이다.

한국여학사협회

김인숙 고문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한국여학사협회 제8.9대 회장을 역임한 김인숙 고문은 지난 12월 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강영훈) 주최 세계자

편집 후기

'시작'이란 참으로 설레는 순간이다. 1964년 창간하여 348호를 맞은 '여성'을 맡게된 심정은 걱정과 자랑스러움의 교차 그 자체이다. 33년을 한결같이 전례무구한 선배들의 뒤를 잇는다는 자랑스러움과 잡힐 수 있을 까하는 걱정. 하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운동의 산 역사로 남아있는 여협의 '저력'이 있기에 마음껏 뒤를 따를 수 있을 것 같다.

'97년은 여성운동의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12월 대선은 여성정책이 실효를 거둘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북경여성대회의 주요 전략이었던 여성운동의 '주류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올 한해도 앞을 향해 바쁘게 뛰어야 할 우리 여성들의 건투를 빈다. 뭇

월간여성 · 1997년 1·2월호 통권348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이연숙

편집인: 김금례

인쇄처: 코리아 해럴드

Lag-out: 한라기획 ☎256-6753

발행날짜: 1997년2월10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대) 794-4560, 794-4450~1, 794-4766~7,

FAX: 796-4995

· 편집: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서은경

위원: 김효자/나미례/문현경/박금옥/배동순/신동식/이경자/홍정희

담당: 오순옥

후원자를 모십니다.

본회는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본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본회의 목표와 활동에 찬성하시는 분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여러분의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00원 이상 보내주시는 분께는 1년분 '여성'지를 보내드립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동참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농협 한강로지점

067-01-001600

또는 지로용지 이용

후원금을 보내신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794-456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목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